2016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9월 24일(토) 12:40-18:00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 302

	일반 세션 (사이버관 소강당)	다국어사전 세션 (사이버관 302호)
12:30-13:00	등록	
13:00-13:10	개회사 손지봉 (한국통역번역학회장)	
13:10-14:10	김순영(동국대) 문제중심학습법(PBL)을 이용한 학부 번역수업 사례연구 박정아(국립국어원) 학습용 이중언어 사전의 편찬 방향과 실제-『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중심으로 사회: 이혜승(수원대) 토론: 송연석(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숙종(한국외대)	
14:10-14:30	휴식	
14:30-16:00	최경희(동국대) 영한번역 교육: 텍스트 유형별 자연스러운 번역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문법은유의 중요성 이지민(계명대) 한영 번역에 있어 제 3세대 번역가의 번역 전략 연구 최승권(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자동 통번역 방법 사회: 남원준(한국외대) 토론: 이현경(경희대), 박지영(한국외대) 원종화(중앙대 국제대학원)	홍종선, 도원영, 장선우(고려대) 중국어권 화자를 위한 한중사전 편찬 사업의 쟁점 정호정(한국외대) 한국어기초사전의 다국어사전 구축: 작업 흐름과 이슈 신혜인(이화여대): 다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영어의 문화소 번역 전략 사회: 이주연(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토론: 김아영(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 임세인(한국외대), 최진실(계명대)
16:00-16:15	휴식	
16:15-17:45	홍정민(이화여대) 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 및 수용의 변화와 원인 - 손드하임의 '스위니 토드'를 중심으로 이상빈(한국외대) 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 번역에 관한 비평적 담화분석: SPOTV News를 중심으로 선영화(한국외대) 영미권 소설에서 한국 영화로의 각색 사례 연구 사회: 이소희(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토론: 허지운(이화여대) 이상원(서울대) 김순미(숙명여대)	11. 정환승(한국외대) 한국어 문법용어의 태국어 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2. 김한상(경희대) 한서 사전 구축을 위한 번역과정의 특성과 도전 사회: 전혜진(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토론: 박경은(한국외대) 성초림(서울대)
17:45-18:00	폐회	

세 션 1

13:10-14:1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 302

문제중심학습법(PBL)을 이용한 학부 번역수업 사례연구

김 순 영/ 이 선 영
동국대학교-서울

I. 연구목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법(PBL)을 번역수업에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번역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교실상황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PBL과 기존 번역교수법에서 논의되었던 사회구성주의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PBL과 과업중심 혹은 프로젝트 중심 번역교수법의 차이를 짚어볼 것이다. 다음으로, PBL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문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필자가 경험한 문제개발 과정을 예시로 다루어보고, 학부 번역수업의 강의계획표 작성, 실제 수업에의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PBL이란

PBL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비구조적(unstructured)이고 실제적인(authentic)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2. 구성주의와 PBL의 비교

구분	구성주의	PBL
학습원리	• 협동학습 • 자율적 학습 • 학생 주도적 학습환경 • 실제적(authentic) 성격의 과제 • 맥락, 상황적 지식의 제공 • 다양한 견해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습득	• 조별 협동학습 • 자율적 학습 • 학생 중심 학습 • 관련 분야에 실재하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 • 학습자가 개별학습 혹은 협동학습을

	•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how to learn)의 습득, 지식의 전이성 강조	통해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하여 제시 •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 및 문제해결과정 습득
교수자의 역할	• 학생의 학습을 돕는 조언자의 역할	• 교수 설계자 • 학습촉진자 • 학습결과 평가자
학생의 역할	• 자율적·적극적·책임감 있는 학습의 주체	• 문제 해결자 • 자기주도적 학습자 • 협력적 학습자

3.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vs. 프로젝트중심학습(Project Based Learning)

구분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중심학습
개념	•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문제를 매개로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어진 주제 하에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
특징	• 공식적으로 관찰되는 전형적 절차가 있음 • 비구조화된 문제로 허구적 시나리오 사용 • 문제해결 과정이 비교적 짧음	• 다양한 절차가 가능 • 시나리오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 문제중심학습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진행
공통점	• 주어진 문제나 과제에 정답이 없음 •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능력 제공 • 전통적 수업 혹은 과제보다 길고 다면적	

(Larmer, J., 2004)

III. 문제중심학습법(PBL)

1. PBL에서 '문제'의 성격

PBL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문제(problem)'를 기반으로 하므로,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1) 전통적 수업에서의 '문제'란: 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적용을 위해 사용
2) PBL에서의 '문제'란: 학습의 시작점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학습자가 스스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2. PBL의 교육목표

1)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 외 교과목으로부터 통합된 지식 습득
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 함양
3) 독립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습득
4) 효과적인 팀 활동능력 습득
5)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 함양

3. PBL의 절차

1) 문제 제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배경을 소개한다.
2) 문제 확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해결안의 최종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며, 해결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결정한다.
3) 개별학습: 학습과제 중 자신이 맡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탐색 및 학습한다.
4) 문제 재확인 및 문제해결안 도출: 개별적으로 학습한 학습내용을 공유한 다음 문제해결에 더 필요한 사항을 다시 추출, 학습한다. 이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안을 도출한다.
5) 문제해결안 발표: 수업시간에 각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해결안을 발표하며, 이때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것을 비교하여 최종 해결안을 모색한다.
6)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 학습자는 학습결과 발표를 통해 공유된 해결안을 정리하고, 교수자가 이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간단한 강의 형태로 요약, 정리한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학습자는 스터디(성찰) 일지를 작성한다.

생각 (ideas)	사실 (facts)	학습과제 (learning issues)	실천계획 (action plans)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학습자의 가설이나 추측을 검토한다.	문제에 제시된 사실과 이미 학습자가 알고 있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선정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이후에 해야 하는 일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4. PBL의 유용성

1)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2)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킨다.
3) 자신감과 적극성을 향상시킨다.

Ⅳ. 적용사례

참고문헌

최정임, 장경원. (2010). PBL로 수업하기. 학지사.

Barrows, H.S. (1996). Problem-based Learning in Medicine and Beyond. Bringing problem-based learning to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pp. 3-13. San Francisco: Jossey-Bass.

Don Kiraly. (2000).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Larmer, J. (2014). Project-based learning vs. problem-based learning vs. X-BL. Retrieved from http://www.edutopia.org/blog/pbl-vs-xbl-john-larmer

Savery, J.R. & Duffy, T.M. (1995). Problem based learning: An instructional model and its constructivist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35(5), 31-37.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의 편찬 방향과 실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중심으로

박정아

국립국어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편찬된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전의 편찬 방향과 그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학습 사전 편찬 경향과 사용자 요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유용한 사전의 유형과 구조를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최종 정비 중에 있는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학습 사전의 편찬 방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약사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편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목록[1)]

시대	연도	사전명	편찬자	주요 특징
고려 ~ 조선	1104	계림유사(중한)	손목	- 송나라 사신이 편찬한 고려 견문록이자 어휘집(약 356개 단어 수록) - 한자 표제어를 한자로 음차 표기
	1400년대 말	조선관역어(중한)	미상	- 명나라 때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통역사 교육용 한국어 교재 - 중국어-한국어 대역 어휘집 (약 596개 어휘 수록)
	1847	노한자전(러한)	푸딜로(Pudillo, M.)	- 제정러시아 연해주의 지방 관리가 급증하는 한국인 이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편찬

1) 배주채(2009), 황호덕 · 이상현(2012), 국립국어원(2009),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하였다.

개화기 ~ 일제 강점기				- 러시아어 표제어를 키릴문자로 음차하고, 한국어(함경도 육진방언)로 대역 - 서구인이 편찬한 최초의 외국어-한국어 사전(대역 어휘집에 가까움.)
	1880	한불자전(한불)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	- 한국어를 표제어로 내세우고, 이를 한글로 표기한 최초의 이중 언어 사전임.
	1890	한영한자전(한영/영한)	언더우드(H. G. Underwood)	- 최초의 한영사전이자 영한사전임. - 한영사전 표제어: 약 4,910항목 - 영한사전 표제어: 약 6,702항목
	1891	라한사전(라한)	미상 (프랑스 선교사)	- 한국인들의 라틴어 학습을 위한 휴대용 라틴어-한국어 대역 사전
		English-Corean Dictionary	스콧(J. Scott.)	- 언더우드의 영한사전 이후 출간된 두 번째 영한사전
	1897	한영자전(한영)	게일(J. S. Gale)	- 세 번째 한국어-서양어 대역 사전 - 한불자전(1880)을 참고함. - 한영 이중 언어 사전의 중요한 참고 사전이 됨. - 표제어: 약 35,000항목
	1901	법한자전(불한)	알레베크(C. Aleveque)	-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과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 편찬 - 최초의 프랑스어-한국어 사전
	1906	일한회화사전(일한)	일어잡지사	- 표제어: 약 4,500항목
	1907	일한이로하사전(일반)	가키하라((柿源治郎)	- 표제어: 약 7,100항목
	1911	한영사전(한영)	게일(J. S. Gale)	- 한영사전(1987)의 증보개정판 - 한글 자모순으로 항목 배열 - 표제어: 약 50,000항목 (인명, 지명 10,000항목 추가)
	1914	영한자전(영한)	존스(G. S. Jones)	- 세 번째 영한사전 - 근대 외래 한자어를 다수 수록함.
	1920	조선어사전(한일)	조선총독부	- 한일 이중 언어 사전 - 소멸되는 과거 조선의 문학어, 문헌 해독을 목적으로 편찬됨. - 표제어: 약 60,000항목
	1924	삼천자전(영한)	게일(J. S. Gale)	- 어휘 목록집의 성격이 강함. - 표제어: 3,226항목
	1925	영조자전(영한)	언더우드(H. G. Underwood & H. H. Underwood)	- 다섯 번째 영한사전 - 표제어: 13,820항목
	1931	한영대자전(한영)	게일(J. S. Gale)	- 한영사전(1911)의 증보개정판 - 표제어: 약 82,000항목 (인명, 지명 10,000항목 삭제, 타 사전 참고, 직접 수집한 표제어 추가)
대한민국	1968	한미대사전(한영)	마틴(S. E. Martin), 이양하, 장성언	- 영어 화자를 위한 한영사전. - 표제어: 약 10,000항목 - 표제어의 활용형 수록

	1988	코스모스조화사전(한일)	간노 외	- 표제어: 약 18,000항목 - 중요어 845항목 표시
	1993	조선어사전(한일)	유타니 외	- 표제어: 약 120,000항목 - 중요어 6,050항목 표시
	2000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신현숙 신현숙 신현숙	-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언어별 대역어 제시 - 표제어: 15,000항목 - 특징: 표제어를 43가지 의미로 분류, 의미 분류 내에서 가나다순 정렬
	2006	Korean Picture Dictionary(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현화	- 한국어 단어에 대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대역어 제시 - 표제어: 3,800여 항목 - 특징: 그림 사전
	2009	한국어 동사 500 활용사전	Bryan Park	- 한국어, 영어 대역어, 영어 예문 번역 - 표제어 종류/수: 동사 500항목
		한국어 형용사 500 활용사전	Bryan Park	- 한국어, 영어 대역어, 영어 예문 번역 - 표제어 종류/수: 동사 500항목
		Korean Picture Dictionary(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강현화	- 개요 및 표제어 수는 강현화(2006)와 동일 - 특징: 그림 사전, 발음 시디(CD) 제공

<표 1>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사전 편찬자, 편찬 언어, 편찬 형태가 계속 변화·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 관계나 선교 목적을 위한 일부 언어문화권의 학습자 대상에서 다양한 언어문화권의 학습자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외국인 주도 편찬에서 한국인 편찬,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 편찬으로, 종이 사전에서 전자 사전, 특수 사전(활용사전 등)의 형태로 편찬 방향이 이동해 왔다. 이러한 사전 편찬 방향의 이동은 학습자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사전을 요구하고, 필요로 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III.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의 유형과 학습자 요구

1.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의 유형

사전은 사용 목적, 이용 대상, 편찬 언어, 사전 정보의 표현 형태, 규범성, 정보의 근거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정영국(2009a)과 조남신(2010, 2015)에 따르면, 학습자의 이중 언어 사용 기능을 위해서는 4종의 사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이중 언어(화) 사전의 유형으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이중 언어 사용 기능을 위한 사전 유형

사전 종류/사용자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목표 언어(target langauge): 한국어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 *목표 언어(target langauge)- 영어
이해용 사전 또는 수용 사전 (receptive dictionary)	한영사전 (예) 한미대사전(1968)	영한사전
이중 언어화 사전 (bilingualized dictionary)	한한영사전 (예) 없음	영영한사전 (예) 옥스퍼드 워드파워 영영한사전[2)]
표현용 사전 또는 생산 사전 (productive dictionary)	영한사전 (예) 영한자전(1914)	한영사전

사전 사용자의 모어와 학습하는 목표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전 표제어의 선정과 뜻풀이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사람이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품사, 문법 항목, 의미 범주 등 사전적 정보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3)].

2.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에 대한 요구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 언어(화) 사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교재 등 다양한 교육 자료에 대한 개발은 이어졌으나 말뭉치, 이중 언어(화) 사전 등과 같은 기초 자료의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을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자신의 모어로 편찬된 웹 사전을 선호하며,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낌.

- 이은경(2015: 175쪽)의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앱 사전이나 웹 사전을 사용하며, 단일어 사전(monolingual dictionary)보다는 이중 언어 사전을 선호하였다. 한편, 사전 이용의 어려움으로 검색 단어를 못 찾거나 본인이 알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2) 영어 사전 사용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일어 사전과 이중 언어 사전의 장점을 결합한 이중 언어화 사전(bilingualized dictionary)은 모든 능숙도의 학습자에게 어휘의 습득과 사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배연경, 2013).

---

2) 『Oxford Wordpower Dictionary』를 번역한 사전이다.

3) 일례로 한국어 문법의 직관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한 한영사전에는 한국어 동사의 활용형이나 문법 관련 표현을 표제어로 올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적을 것이다.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 언어화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한국어 뜻풀이와 외국어 대응어, 번역 뜻풀이가 제공되는 사전을 말한다. 한국어 단일어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와 한국어 뜻풀이만 제공하는 반면, 한국어-외국어 이중 언어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와 대응어만 제시하거나 일부 용례를 번역하여 제시한다. 이에 비해 이중 언어화 사전은 대응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뜻풀이와 뜻풀이 번역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출발어와 도착어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Ⅳ.『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구축 방향과 실제

앞에서 논의한 이중 언어 사전의 편찬 역사와 유형별 특성,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일어(한국어) 학습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을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번역하여 웹 사전과 모바일 사전으로 서비스하는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편찬을 기획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중 언어화 사전 편찬'이라는 관점에서 올해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10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4] 의 구축 방향을 간략한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등가와 차이를 존중한 한국어 뜻풀이와 번역

(1) 친족어

한국어는 친족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의 친족 어휘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자와 상황에 따라 어휘 선택과 용법이 다양해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대응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친족어를 지칭어와 호칭어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별하여 뜻풀이하고, 이런 쓰임을 반영하여 용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친족어를 목록화하여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에서 번역의 뜻풀이 일관성을 꾀하였다.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친족어 개수는 약 130개이다.

<표 3>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친족어 뜻풀이 예

표제어	뜻풀이	용례
장모	아내의 어머니	• 장모와 장인 • 장모에게 절하다 • 가: 아까 결혼식에서 민준이의 장모를 처음 보았는데 신부랑 많이 닮았더구나. 나: 맞아요. 모녀가 둘 다 미인이죠.
장모님	(높임말로)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거**	• 가: 너는 주말만 지나면 얼굴이 좋아지더라.

4) 본 사전은 언어별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 버전의 누리집인 총 20종으로 개발되었다. 이용자는 『한국어기초사전』 첫 화면의 연결 기능을 통해 접속하거나 언어별 사전 개별 주소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부르는 말.	나: 주말에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 주시거든. • 가: 장모님, 이거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거니까 한번 드셔 보세요. 나: 아이고, 고마워라. 바쁠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사 왔어.
형부	언니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가: 언니,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나: 네 형부랑 말다툼을 조금 했어. • 가: 형부, 언니 어디 갔어요? 나: 밖에서 전화하고 있어.

(2) 문화소

한국어교육계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어휘를 '한국문화 어휘', '한국문화 관련 어휘' 등의 어휘로 부르고, 이들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 어휘를 선정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다른 언어에서 '대응어를 찾기 어려운' 한국문화의 '고유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문화가 반영된 어휘를 언어 간 비교를 통해 선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상대하는 다른 언어·문화와 비교하여 도출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서는 한국어와 도착어의 비교를 통해 10개 언어별 한국어 문화소 목록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그림 1>『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 문화소 선정 및 번역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한국어 기준 한국문화 어휘 목록화(1,407개)		**한국문화 어휘 목록의 언어별 대응어 유무 검토**		**10개 언어별 한국어 문화소 목록 도출**
① 6개 한국문화 어휘 목록 중복도 조사 ② ①목록과 『한국어기초사전』 표제어 교차 검토		① 고유성 검토 ② 대응어/대응 표현 제시 또는 음차		
국립국어원		연구진		국립국어원·연구진

(3) 대응어, 대응 표현 없음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는 한국어 학습사전의 특성상 '-은 체하다, -ㄹ 뻔하다' 등과 같은 표제어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표제어는 한국어 문법·표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도착어에서 대응어나 대응 표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대응어를 제시하지 않고, '대응 표현 없음'이라는 말을 대역어 칸에 제시하였다.

2. 사전으로서의 일관성 확보

(1) 문법 용어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기준으로 각 단위에 등장하는 한국어 문법 관련 용어를 목록화하여 개별 언어 내, 10개 언어 간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기준으로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에서 출현한 문법 용어 209개[5]를 언어별로 정리하여 감수 시 참조 목록으로 활용하였다.

<표 4>『한국어기초사전』 기준 문법 용어 참조목록 예

연번	문법 용어	동형어 번호	품사	출현 단위	비고	뜻풀이
16	활용 어미	00	품사 없음	뜻풀이	표제어 '보조사'에 출현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60	동음이의어	00	명사	표제어	'동음어' 참고	발음 나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62	따옴표	00	명사	표제어+뜻풀이		글에서 남의 말이나 글을 따온 부분이나 글쓴이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의 처음과 끝에 쓰는 **문장 부호.**

① 비고: 번역 시 참고가 필요한 특이 사항이나 고려 사항을 제시
② 뜻풀이: 확인해야 할 문법 용어 표제어의 뜻풀이에 다른 문법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 이를 표시함.

(2) 계열어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기준으로 각 단위에 등장하는 요리명, 조리 방법, 색깔, 친족어 등 4개 분야의 계열어를 목록화하여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차 목록에서 문화소와 중복되는 66개 항목을 제거하고 총 174개의 계열어 일관성을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에서 정비하였다.

3.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과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internationalization)

(1) 뜻풀이

『한국어기초사전』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 어휘를 사용한 쉬운 뜻풀이를 하였다. 또한, 한국어 뜻풀이가 도착어로 번역될 때 대응어와 대역 뜻풀이의 의미가 상충하거나 학습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뜻풀이를 수정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표 5> 국내 국어사전과『한국어기초사전』에 정의된 '팔삭둥이' 뜻풀이 비교

5) 표제어 단위 출현 196개, 뜻풀이 단위 출현 10개,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 모두 출현 3개로 총 209개 용어를 목록화하였다.

사전명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1. 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아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1. 임신한 지 **여덟 달 만에 낳은 아이.**
연세현대한국어사전	1.어머니 뱃속에서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아이.**
한국어기초사전	1. (수정 전) 어머니의 배 속에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아이.** 2. (수정 후) 어머니의 배 속에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두 달 일찍 태어난 아이.** ※ 한국에서는 보통 4주를 한 달로 계산하여 임신 기간을 열 달로 본다.

(2) 언어별 검색 기능 강화

외국어 학습자는 자기 모어가 아닌 언어로 사전을 검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이용자의 컴퓨터 친숙도에 따라 웹으로 검색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접속 지역이나 이용 기기에 따라 한국어나 모어의 검색어 입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전에서는 10개 언어별 상용 자판과 한국어 자판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도왔다. 또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한국어 검색어의 철자를 정확히 모르거나 자신의 모어로 한국어 음차 표기를 검색어로 찾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검색 실패를 줄이고자 하였다.

(3) 인터페이스 현지화

사전 메뉴명과 도움말을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메뉴 구성, 텍스트 정렬 등 사전 누리집 시스템도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립국어원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에서는 다른 언어와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는 아랍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검색창의 검색어 입력에서부터, 사전 내용 제시에 이르기까지 아랍어 텍스트는 오른쪽 정렬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아랍어의 모든 메뉴명과 아이콘, 기능 등의 제시 방법에도 이러한 아랍어의 특징을 살려 설계하였다[6].

Ⅴ.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웹 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주요 편찬 방향과 구축 실제를 제시하였다.

전성기(2003)는 "번역으로 인한 외국어의 간섭현상이 때로 불가피하다 해도, 번역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모국어의 외국어화를 부축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어사전은 실제적으

6) 아랍어 누리집 구조 설계는 브리태니커 아랍어 서비스를 참고하였다. 이외에, 아랍어와 다른 언어를 함께 기술하는 국내외 어느 누리집에서도 각 언어의 정렬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

로 낱말로부터 시작되나, 낱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의미면에서는, 이중어사전은 낱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이중언어(화) 사전은 출발어와 도착어의 단어 대 단어 단위 대역어 수준의 번역이 아니라 출발어의 의미를 충분히 재현하되 도착어의 맥락과 어법에 충실한 번역으로 편찬된 담론사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언어 학습자들은 외국어와 모어의 적절한 비교·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외국어의 의미와 어법을 암시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와 요구, 교육 현장 여건,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축한 본 사전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전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현화(2001), 「한국어 학습용 이중어 사전 역할에 대한 논의-반이중어(semi-bilingual dictionary) 사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2차 아시아 사전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아시아 사전학회, 44-49.

강현화 · 최진희 · 윤현애(2009). 「학습 겸용 어휘자료집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3-53.

국립국어원(2009).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서울: 국립국어원.

박리라 · 조성은(2015). 「문화콘텐츠 웹사이트의 로컬라이제이션 연구: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7(3), 191-213.

배연경(2013). 「사전 사용 연구의 현황과 의의- 영어교육에서의 사전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1, 108-134.

배주채(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 개관」, 『한국사전학』 14, 7-51.

윤서향(2011). 「영영한사전 비교 분석」, 『한국사전학』 18, 174-208.

송은하(2013). 「영한사전의 역사와 시대별 영한사전의 특징」, 『한국사전학』 22, 127-159.

신자영(2014). 「스페인어 학습자 사전의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5(1), 93-125.

이승재(2012). 「21세기형 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한국사전학』 20, 114-140.

이은경(2015).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국어국문학』 171, 145-178.

전성기(2003). 「번역과 이중어사전」, 『한국사전학』 1, 57-86.

정영국(2009a).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의 편찬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19(4), 49-68

_____(2009b).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전망: 영어 학습자 사전의 경우에 비춰 본 고찰」, 『한국사전학』 14, 52-79.

조남신(2010). 「이중언어사전의 유형화와 그 특성」, 『슬라브어연구』 15(2), 91-102.

_____(2015). 『사전학』, 서울: 한국문화사.

조미옥(2004), 『한국사전학』 20, 175-202.

황호덕 · 이상현(2012).『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1, 2권, 서울: 박문사.

<인터넷 자료>

『표준국어대사전』(2016년 9월),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16년 9월),
http://dic.daum.net/index.do?dic=kor
『연세 현대한국어사전』(2016년 9월),
https://ilis.yonsei.ac.kr/dic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6년 9월),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dataType=02
『한국어기초사전(심범 운영 중)』(2016년 9월),
http://krdic.korean.go.kr/mainAction

세 션 2(일반세션)

14:30-16:0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 302

영한번역 교육: 텍스트 유형별 자연스런 번역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문법은유의 중요성 - 선행연구

최경희

배경

- 번역수업 시
  - 일반번역에서 전문번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 일반번역과 전문번역의 문법적 차이

배경: 예

- Conscious that coordination of cooperation activities avoids duplication [...] and taking into account other mechanisms between their countries.

학생번역 1: 협력을 통해서 중복된 활동을 피하고 양국간 다양한 협력구조가 가능함을 인지하며

학생번역 2: 양국은 당사국의 협력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번역: 협력활동의 조정이 중복을 예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경: 원인

- The sudden explosion of Mount Pinatubo in June 15, 1991, sent a vast column of ash into the sky, … (*Newsweek*)

학생번역 1: 1991년 6월 15일 갑작스러운 피나투보 화산폭발은 상공에 거대한 재 기둥을 뿜어냈다..

학생번역 1 수정본: 1991년 6월 15일 피나투보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여 거대한 재 기둥이 상공에 치솟았다.

언어적 차이: 명사화

- 영어는 "명사화가 강한 언어" (Halliday 1985: 72)
- 영한 번역시 영어와 한국어 간 명사화 차이
- 이영옥 2002, 서계인 2004, 이희재 2009, 조은미 2014

참고문헌: 예

- The president had a sudden fall in his popularity.
  - 대통령은 지지도의 갑작스러운 하락을 경험했다.
  - 대통령(의) 인기가 갑자기 떨어졌다.

- The doctor's careful examination brought about the patient's speedy recovery
  - 의사의 꼼꼼한 진찰은 환자의 빠른 쾌유를 가져왔다.
  - 의사가 꼼꼼히 돌봐준 덕분에 환자가 빨리 나았다.

(이희재 2009: 45)

일반번역과 전문번역

- 일반번역: 뉴스기사, 기관 소개 및 기타 일반적 내용의 정보 전달 위주 텍스트
- 전문번역: 의학, 법률, 학술적 내용 등

리서치 질문

- 일반 및 전문 번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이론 틀?
- 전문번역가와 학생 번역의 차이는 (언어적 차이 특히 명사화와 관련하여)?

1. 이론 틀

-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 구어체 vs. 문어체
  - 문법은유 (grammatical metaphor), lexical density, clause complex 당 절의 수

Clause complex 당 절의 수

- 문어체의 경우 한 절로 구성된 문장, 구어체의 경우 여러 절로 구성된 문장이 일반적임
- 일반적으로 한 clause complex 안에 절의 수가 많을수록 구어체에 해당할 확률이 높음.
-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두 기준(lexical density, 문법은유)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Lexical density (어휘/단어 밀도)

- 전체 텍스트에서 어휘 항목 (content words)가 차지하는 비율
- 어휘항목과 문어.구어체 선택 간의 상관관계 보여줌 (Ure 1971)
- 구어체: 1.5-2; 문어체: 3-6 (Halliday 198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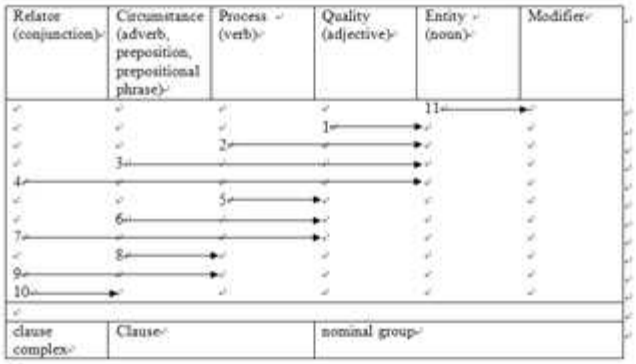
문법은유

- 명사형이 대표격
-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문법은유
- 예.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Hard work leads to success.

문법은유의 일반적 형태

The 'general drift' of grammatical metaphor (Halliday 2004: 76, Figure 3.5 adjusted)



문법은유의 일반적 형태: 예

(Halliday 2004: 77)

relator 'so'		Example
Relator: conjunctioof (hapn	Clause complex	(*a* happened) so (*x* happened)
10 (minor process in circumstance: preposition)	Clause	(*x* happened) as a result of (happening *a*)
9 process: verb	Clause	(happening *x*) resulted from (happening *a*)
7 quality: adjective	Nominal group	The resultant of (happening *x*)…
4 entity: noun	Nominal group	The result (of happening *a*)…

데이터

- 나래이션
- 뉴스 기사
- Steven Hawking의 <<시간의 역사>>
- 정부 양자 협정 전문 (preamble)

- 호주 멕쿼리 대학교 통번역과정 학생 8명의 번역 과제 (2014년 2학기, 2015년 1학기)

문장 당 절의 수

	출발어 텍스트 (ST)	학생 번역 (TT1)	전문번역가 번역 (TT2)
나래이션	1.9	1.8	1.6
뉴스기사	2.1	1.9	1.8
과학	2.2	2	2
법률	9	12	9

뉴스 기사 재분석

	ST	TT1	TT2
뉴스 기사	23/11 = 2.1	25/12.9 = 1.9	36/20 = 1.8

예 1 : 학생번역 (TT1) vs 전문가 번역 (TT2)

S	T	ST	TT1	TT2
1	1	The sudden explosion of Mount Pinatubo in June 15, 1991, sent a vast column of ash into the sky,	1991 년 6 월 15 일 갑작스러운 피나투보 화산폭발은 상공에 거대한 재 기둥을 뿜어내	1991 년 6 월 15 일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다.
	2	blotting out the sun,	태양을 가리고	
	3	killing hundreds and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4	demonstrating one way ***[[to save humanity from a potential climate disaster]].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후 재난에 인류를 구원할]]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다.	
2	1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2			태양을 가렸다.
3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그러나 그 사건은 [[기후 재난에서 인류를 구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Lexical density

	ST	TT1	TT2
나래이션	3.8	4.2	4.2
뉴스 기사	6.3	6	5.2
과학	5.5	5.4	5.7
법률	10.1	7.2	10

문법은유

	ST	TT1	TT2
Story	0.04	0.17	0.19
news	0.57	0.31	0.19
Science	0.32	0.25	0.14
Legal	2.45	1.68	2.44

문법 은유 예 1

	ST	TT1	TT2
1-1	Seeking, through this Agreement and other vehicles, to help demonstrate to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stro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rade liberalisation, (3)	본 계약 및 다른 수단을 통해, [[강력한 환경 보호 및 무역 자유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를 광범위한 국제사회에 증명하는 것]]을 추구하며 (2)	이 협정과 다른 수단을 통하여, [[더 넓은 국제사회에 강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의 상호 보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추구하며, (3)
1-2	Conscious [[that coordination of cooperation activities avoids duplication]] (4)	양국은 [[당사국의 협력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0)	[[협력활동의 조정이 중복을 예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4)
1-3		상호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	

문법 은유 예 1-1

	ST	TT1	TT2
Metaphoric version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stro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rade liberalisation, (3)	강력한 환경 보호 및 무역 자유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 (2)	강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의 상호 보완 (3)
Congruent version	stro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mutually support	양국이 공조한다	강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가 서로 보완되다
Metaphoric moves	1. Mutual (Circumstance: adverb -> Quality: adjective) 2. Supportiveness (Process: verb -> Entity: noun) 3. Strong environmental... (Entity: noun -> Modifier)	1. 양국의 (Entity: noun -> Modifier) 2. 공조 (Process: verb -> Entity: noun)	1. 강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 (Entity: noun -> Modifier) 2. 보완 (Process: verb -> Entity: noun) 3. 상호 (Circumstance: adverb -> Quality: adjective)

문법 은유 예 1-2

	ST	TT1	TT2
1-2	Conscious [[that coordination of cooperation activities avoids duplication]] (4)	양국은 [[당사국의 협력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0)	[[협력활동의 조정이 중복을 예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4)
1-3		상호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	

결론과 한계점

- SFL의 문법은유 개념을 번역교육에 도입 (문법은유의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텍스트 타입에 따른 번역 교육 가능성)
- 학생 번역은 네 가지 텍스트 타입 모두에서 전문가 번역보다 ST 간섭현상을 많이 받음
- 전문가 번역 비교시, 학생 번역은 일반번역의 경우 구어체에 더 가깝게, 전문번역의 경우는 문어체에 더 가깝게 번역해야 할 것임.
- 데이터 규모가 작아 향후 연구시 데이터 규모를 늘려 연구할 필요성

참고문헌

CHO, WONHI (2014): Hanyeong byeonyeok, ireol ttaen ireohke. [Korean-English translation, right translation for specific fields, situations and topics]. Seoul: Booki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1(2):43-74.

HALLIDAY, MICHAEL A.K. (1985): *Spoken and Written Language*. Geelong: Deakin University. London: Edward Arnold.

HALLIDAY, MICHAEL A.K. (2004): *The Language of Science. In* JONATHAN J. WEBSTER, ed. *Collected Works of M.A.K.* Collection. Vol. 5. London: Continuum.

LEE, HEE JAY (2009): Penyekuy thanssaying [The birth of translation]. Seoul: Gyoyangin.

LEE, YOUNG-OK (2002): Hankukeowa yeongeogan eoneogujoui chaie ttareun beonyeokui munje: inyongmunui byeonyeogeul jungsimeuro [Translation problems between Korean and English reflecting their structural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translation of reported speech].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3(1): 59-81.

SEO, GYEIN (2004): Siljeon yeongeo byeonyeokui gisul [Techniques of English translation practice]. Seoul: Bookline.

SNELL-HORNBY, MARY (1990):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John Benjamins.

URE, JEAN (1971): Lexical Density and Register Differentiation. *In*: G. E. PERREN and J. L. M. TRIM, eds. *Selected Paper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1969.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3-452.

한영 번역에 있어 제3세대 번역가의 번역 전략

계명대학교 이지민

한국문학 번역가 변화

- 1세대 번역가: 1990년대.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한국인 초벌번역 후 외국인이 다듬기.
  이문열, 이청준 소설이 프랑스에서 주목

- 2세대 번역가: 2000년대. 한국인 교포, 한국학 전공 외국어 연구자
  김지영.

- 3세대 번역가: 2010년대. 외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2세대, 3세대 번역가의 번역 전략

- 김지영: '영어권 독자들은 짧은 문장을 선호하므로 영어로 된 문단이 너무 헷갈리면 의미와 예술성을 그대로 살리는 한도 내에서 미국인의 기준의 맞게 본문을 정리하고' '가끔 문장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긴 문장을 쪼개야 글이 매끄러워진다면 문장을 쪼개야 한다'.고 설명한다(국민일보 2011.4.15.)

- 스미스: 이미지와 시적 문장에 주목하고 번역가는 어느 부분에 충실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 불충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부주의함이 아니라 더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 불충을 허용하는 것이지요(국민일보 2016.6.15.)

『채식주의자』

- 여성이 주인공
- 서술자가 여러 명인 교차시점
- 영혜를 중심으로 '나'(영혜의 남편), '영혜의 형부, 영혜의 언니 인혜의 시점에서 서술이 수행
- CF. 『엄마를 부탁해』는'엄마'를 중심으로 '너(딸)', '큰아들', 남편, '나'(엄마)의 시점에서 서술 진행

소설의 시점

- 이야기가 누구의 눈과 입을 통해 서술되는가를 의미(윤충의 2010: 253)
- 서술자가 작품 내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 '인물지각과 그것을 전하는 서술태도 사이의 거리'(황영미 2011: 441)

「채식주의자」의 시점

- 이중시점(교차시점): 남편이 '나'라는 일인칭 서술, 주인공 아내를 3인칭화. 주인공 아내는 독백만이 1인칭으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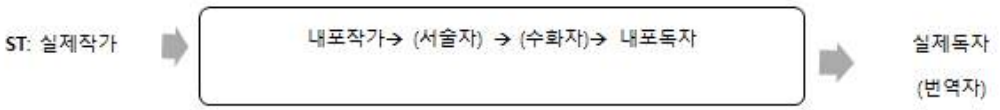
- 상반된 시선에 갇힌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기법.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시선을 제시함으로서 삶의 다른 단면을 충격적으로 제시하는데 유용한 방식.

- 남성을 서술자 '나'로 등장시키고 주인공인 여성을 삼인칭화하는 이중시점은 여성의 타자성을 부각하기 위해 여성작가들이 전략적으로 취하는 일종의 시점 전략(정미숙 1997: 226-227)

내포작가(implied author)

- 웨인 부스(Wayne C. Booth)가 그의 저서 *The Rhetoric of Fiction*(1961)에서 처음 도입한 용어
- 작가가 작품을 쓸 때 만들어내는 '제 2의 자아'
- 실제 존재하는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추론하는 작가의 이미지를 의미
- 실제 작가는 작품을 쓰고, 실제 독자는 책을 읽으며, 내포 작가는 의미를 구현하고, 내포 독자는 의미를 해석한다(Nelles 1993: 22).
- 실제 작가처럼 인격을 지닌 존재도 아니고, 서술자처럼 텍스트 안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존재도 아닌, 말 그대로 '내포'된 것이며, 텍스트 안에서 서사전략가의 역할(양미영 2014: 249-250).

내포작가



<내포작가와 다른 주체와의 관계>(채트먼, 1998: 202)

내포작가와 서술자(시점)의 거리

- 내포작가와 서술자의 관계 또는 거리는 서사 구성과 독자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작품의 주제를 품고 있는 내포작가의 메시지는 항상 서사의 규범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봄(시모어 1995: 315; 양미경 250 재인용).
- 규범에 어긋나게 고안된 서술자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인식되고, 내포독자는 내포작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서술자를 비껴선 '샛길'을 취하게 된다(ibid.)
- 「채식주의자」의 나: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제도와 관습을 대변하며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고 가부장적이며 이기적인 주서술자. 내포작가와는 거리가 멀게 설정이 되어 있어 독자에게 신빙성이 없는 화자로 인식.

일인칭 시점의 '나'

-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속세적인 인물
- 아내인 영혜가 튀지 않는 외모에 평범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다.
-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며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가 못마땅하기만 하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

[ST] ①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전무 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중략)

여자들끼리의 사교적인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 있는 ②아내를, 그녀를 흘끔거리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p.29)

[TT] ①When the other guests surreptitiously craned their necks, no doubt wanting to be sure that they really were seeing what they thought they were, the eyes of the executive director's wife met mine. (중략)

②All too conscious of my wife, sitting there hollow-eyed and making no attempt to join in with the other women's exchange of pleasantries, I controlled myself and (후략) (p.29)

→ 잘 전달되지 않음

아내에 대한 '나'의 평가와 감정

[ST] ①이 모든 상황이 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놀람이나 당혹감보다 강하게, ②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p.55)

[TT] ①The whole affair made my flesh crawl. It just didn't seem shock or confusion so much as ②an intense feeling of disgust. (p.51)

→ 과장 및 증폭해 전달.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며 이기적인 측면을 강조.

주변적 사건의 축소

[ST]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해 물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p.37)

[TT] At the weekend, the phone rang and my wife picked up.
"Yeong-hye,"my father-in-law bellowed, "are you still not eating meat?" (p. 36)

영혜의 일인칭 내적 독백

- 형식: 이탤릭체로 남편의 서사와 물리적인 간격을 두고 배치
- 번역: TT의 형식 보존. TT에서도 ST에서 추구하는 고립감을 잘 살림
- 독백의 구성: 꿈과 고백

꿈

[ST] ①*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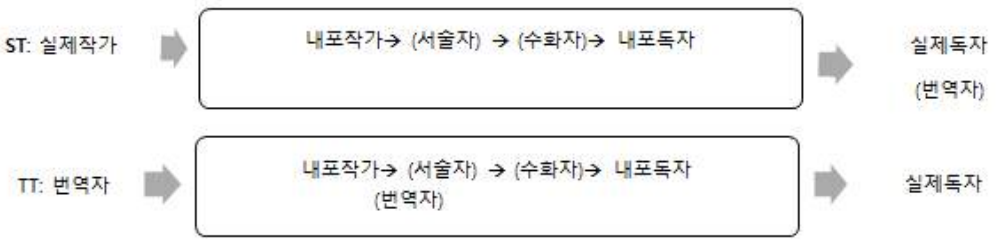
그럼 그걸 감춰준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분명히 나나 당신이 아닌데. …… ②*살이었어. 그것만은 확실해. 커다란 흙삽으로 머릴 쳐서 죽였어. 둔중한 울림, 금속과 머리가 부딪치던 순간의 탄성…… 어둠속에서 고꾸라지던 그림자가 생생해.*

[TT] ①*Murderer or murdered… hazy distinctions, boundaries wearing thin. Familiarity bleeds into strangeness, certainty becomes impossible. Only the violence is vivid enough to stick. A sound, the elasticity of the instant when the metal struck the victim's head… the shadow that crumpled and fell gleams cold in the darkness.*

→ TT에서는 일인칭 시점에서 묘사된 구체적 내용보다는 이미지와 의미를 직접적인 어휘를 통해 전달

→ 1인칭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재된 인상.

내포작가로서의 번역자



결론

- '나'의 시점 구현
  - 주서술자인 '나 ' 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번역 (아내에 대한 애정 없음, 이기적 관점 등을 증폭해 번역)

- 배경적인 사건의 축소 및 생략

- 주인공 영혜의 내적 독백
  - 스타일 재현 성공: ST의 고립감 잘 살림
  - 꿈: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혼재. ST의 감정의 간접적 표현이 TT에서는 직접적 표현
  - 사건: 현실감을 높이는 번역 (" " 추가 등)

→ 번역자는 ST의 독자로서 ST를 읽고 내포독자로서 ST의 내포작가의 의도와 주제를 해석한 후, 이후 번역 과정에서 정보의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번역자 자신이 새로운 내포작가로서 내포독자를 배려해 의미 전달을 위한 서사를 재구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자동 통번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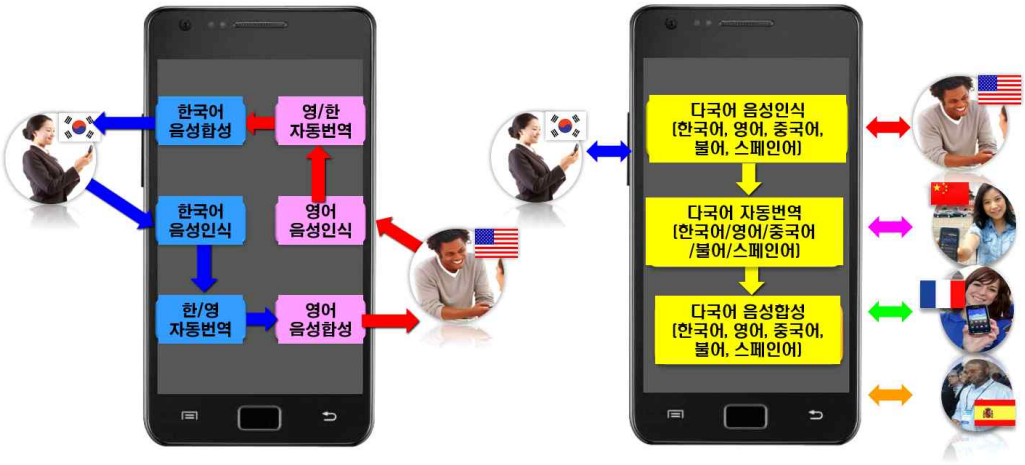
최 승 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 발표의 목적

❍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시 가장 불편사항: 언어소통(스포츠닷컴, 2014.5.10)
❍ 외국인 2명의 '부여·전주 1박 2일 여행' 동행해보니- 영어 표기·안내 거의 없어(조선일보, 2016.9.2.)

❍ 수요에 비해 통역사의 숫자가 부족하고 또한 통번역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도 크다.
❍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최승권, 통번역학 연구 제17권3호)

II. 양국어와 다국어 자동 통번역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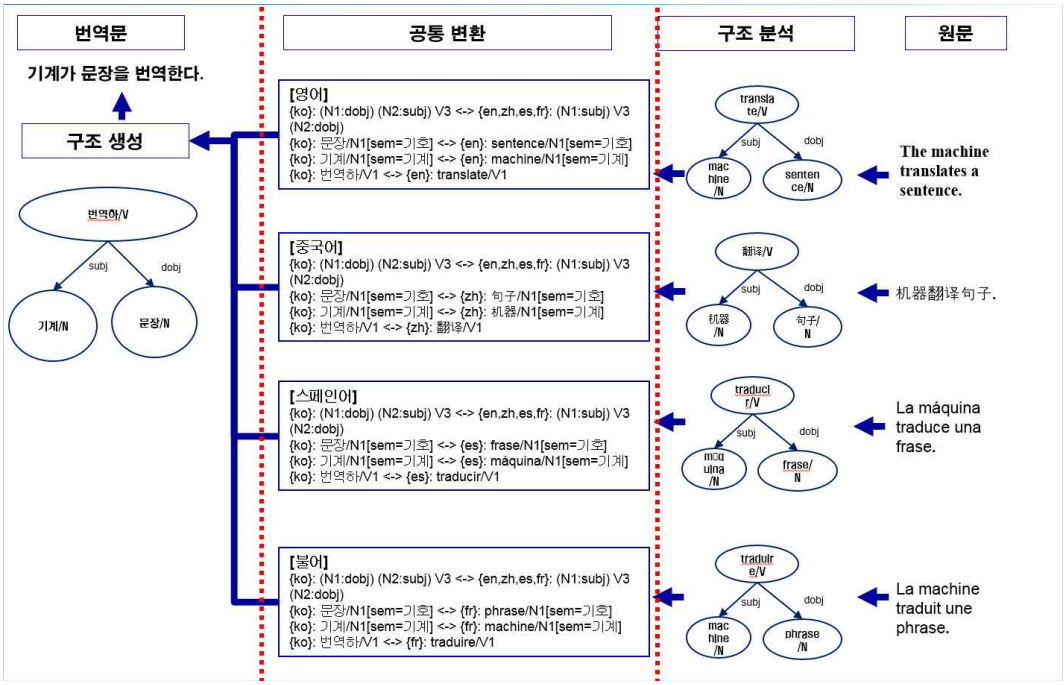
a) 양국어 자동 통번역　　b) 다국어 자동 통번역

III. 기존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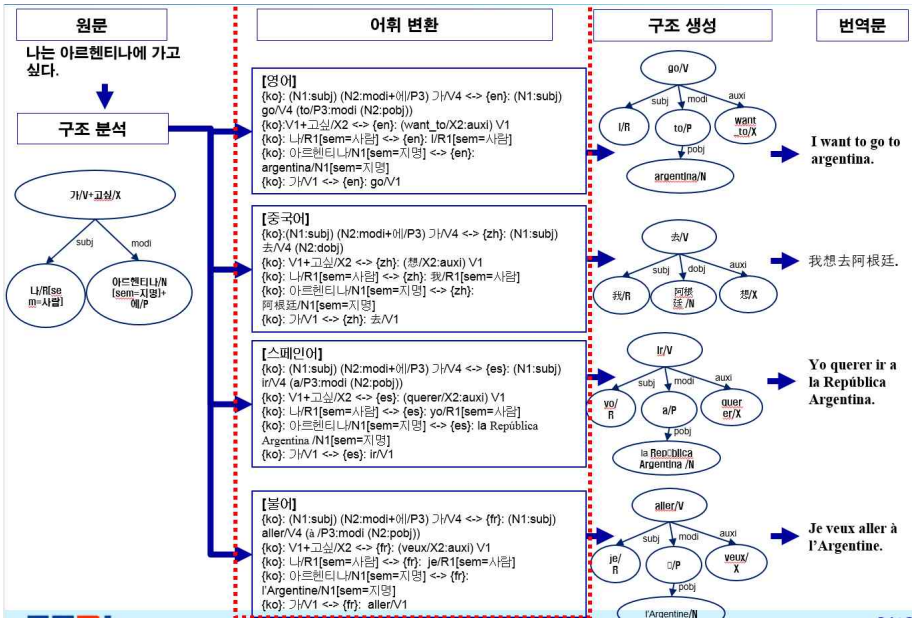
1. 간략한 자동번역 역사

- 1980년대: 규칙기반 방식
- 1990년대: 통계기반 방식
- 2000년대: 규칙기반 방식과 통계기반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2. 다국어 자동 번역의 예 1



3. 다국어 자동 번역의 예 2



4. GenieTalk 동영상 시연

5. 평가 방법 및 번역률

평가 방법

- 평가 문장: 응용분야 대표 발화 문장 샘플링에 의한 원시언어 300문장 이상 랜덤하게 추출
- 외부기관 5명의 전문번역가에 *의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균값으로 평가:버전별 blind 평가
- 평가 점수: 세계적으로 수동평가 시에 사용하는 번역 이해도(LREC 번역률 평가기준)에 따른 0~4점 점수 부여 기준 사용
- 번역률 산출방법: 번역률 (%)= (총점 x 100)/(문장수 x 4점)

LREC 번역률 수동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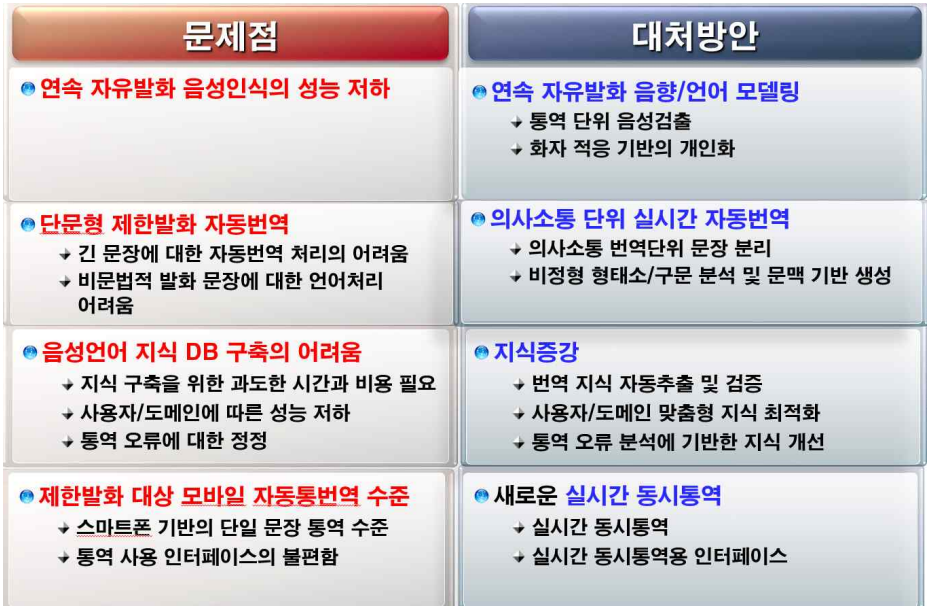
점수	번역률	평가 점수 기준
4	100%	원어문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 경우
3	70~80%	문장의 술부가 정확히 전달되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의 골격이 전달되는 경우
2	50%	하나 이상의 구가 정확히 번역되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1	25%	문장 중에 하나의 단어 또는 구라도 정확히 번역된 경우
0	0%	번역문 출력이 안 된 경우

사용자 만족 수준

번역률

언어쌍	영한	한영	중한	한중	일한	한일	스한	한스	불한	한불
번역률(%)	87.63	88.21	85.38	77.94	89.00	86.69	76.90	77.46	76.28	79.78

IV.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기존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V. 의사소통단위 다국어 자동 통번역

1. 의사소통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 비정형 발화 분석, 의사소통 단위 실시간 문장 분리 등 연속 자유발화 언어분석
❍ 문맥 기반 언어 분석 및 의사소통 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 다중 모델(규칙, 통계, 신경망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2. 의사소통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적용전의 예

3. 의사소통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적용후의 예

VI. 결론

❍ 다국어 자동 통번역기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방법 소개
❍ 의사소통단위 다국어 자동 통번역(=실시간 다국어 자동 동시통역)에 대한 교수님들의 조언 요청

참고문헌

최승권, 홍문표, 박상규. (2005).「다국어 자동번역 기술」,『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5호, 16-27.

최승권, 김영길. (2014).「공통 변환 기반 다국어 자동번역을 위한 언어학적 모델링」,『언어와 정보』, 제18권 1호, 77-98.

최승권, 김영길. (2016).「다국어 자동 통번역을 위한 공통 변환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 번역 방법」,『통번역학연구』, 제17권 3호, (출간예정).

세 션 2(다국어세션)

14:30-16:0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 302

다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영어의 문화소 번역전략

신 혜 인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번역이 이문화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국의 문화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용어나 표현인 '문화소'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번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근희(2003)는 이러한 문화소를 '문화와 밀접한(culture-bound) 상관어'라고 지칭하면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문화로부터 비롯되는 특정 어휘나 언어사용 관습"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근희 2003: 6-7)

그동안 문화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권오숙(2014)과 노진서(2013)에서는 문학번역 분야에서 문화소 번역전략을 다루었으며, 권인경(2013)과 김도훈(2006b)에서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분야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을 다룬 바 있다. 박현주(2014)와 김훈밀(2015)은 공공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의 표준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전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국립국어원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진 2015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다국어사전 편찬사업(정호정 외 2015a, 2015b)은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소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문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위 다국어사전편찬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소번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문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

이근희(2003)는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문화소)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번역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문화소)의 분류 및 번역전략 (이근희 2003: 17-18)

문화소의 분류	문화소의 번역전략
고유명사	(1) 성(姓)과 이름을 전체 음차 번역하는 방법 (2) 성만을 음차 번역하는 방법 (3) 목표 문화권에 잘 알려진 다른 이름으로 번역하는 방법 (4)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기능만을 옮기고 이름은 생략 번역하는 방법

원천문화의 특정문화와 관련한 어휘의 번역	(1) 원문의 어휘를 그대로 음차 번역하고 어떠한 주석도 달지 않는 방법 (2) 원문의 어휘를 좀더 일반적인 개념의 어휘로 undertranslating 하는 방법 (예: 類를 생략하고 種만 밝혀놓은 경우) (3) 원문의 허위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목표언어로 번역하고 괄호 안에 역주를 첨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 (4) 원문의 허위를 생략하는 방법
원천문화 내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어휘의 번역	(1) 원천 문화내의 특정인물에 관계된 사건의 경우 그 인물이 목표 문화권 내에서 지명도가 낮거나 그 의미의 중요성이 낮다면 생략하는 방법 (2) 문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역자 주석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법
관용어구의 번역	(1) 번역 당시의 목표 문화권의 유형어 또는 속어로 대체하여 번역하는 방법 (2) 관용어구의 표층 구조의 의미는 무시하고 그 어구가 암시하는 심층적 의미로 번역하는 방법 (3)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목표 언어의 관용어구로 번역하는 방법 (4) 워천 텍스트의 관용어구에 대해 일대일 직역하는 방법
도량형 단위의 번역	(1) 원천 문화권의 측량단위를 그대로 번역하는 방법 (2) 원천 문화권의 측량단위를 목표 문화권의 측량단위로 환산하여 번역하는 방법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의 번역	(1) 관직·지위와 인명을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 원천 문화권과 목표 문학권에서 그 어순이 다르다면 목표 문화권의 언어구조에 적절하도록 바꾸어 번역하는 방법 (2) 원천 언어권의 개인주의 문화와 목표 언어권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표현방법이 상이하다면 목표 문화권의 언어관습에 맞도록 적절하게 번역하는 방법

김도훈(2006a)은 문화소 번역을 크게 단어 차원과 관용구 차원으로 나누어서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어 차원의 경우 1) 상위어 사용전략, 2) 문화대체어 사용전략, 3)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전략, 4) 부연설명 제공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용구 차원의 경우 1) 유사한 형태(어휘)·유사한 의미의 관용구 사용전략, 2) 상이한 형태(어휘)·유사한 의미의 관용구 사용전략, 3) 부연설명 제공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인경(2013)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어휘(단어)위주로 번역을 다룬 것이 대부분인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소를 해석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텍스트 전반적으로 맥락을 파악하여 의미적 등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1) 어휘, 2) 관용구, 3) 문법, 4) 맥락 등 네 가지 층위를 나누

어서 살펴보고, 번역전략으로 1) 상위어 사용전략, 2) 일반적 어휘 사용전략, 3) 문화대체어 사용전략, 4) 설명을 붙인 차용어 사용전략 5) 부연설명 제공 전략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소에 속하는 지명, 인명 등은 공공번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박현주(2014)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번역을 비교하면서 문화소 관련 고유 명사표기의 일관성 결여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더불어 문화소 관련 고유명사표기 역시도 기관 간 일관된 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동일 기관 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가야금산조와 판소리는 그대로 음역하여 'Gayageum sanjo', 'Pansori'로 번역, 표기하는 반면 살풀이는 'Salpuri Dance'로 음역과 의역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한편 단소는 'Danso(bamboo flute)'라고 괄호안에 별도의 부연, 보충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극장의 경우는 소고춤을 'So-Go-Chum'으로 번역하고 있어 국립국어원의 'Salpuri Dance'와는 상이한 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박현주 2014: 65)

이처럼 문화소를 비롯하여 공공번역의 일관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공공번역 단일전담기구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훈밀 2015, 임현경 2015, 정호정 2015, 홍정민 2015 등)

Ⅲ.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의 개요

2015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이하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은 국립국어원의 다국어사전 구축(2단계) 사업의 3차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기초사전 전체 5만개 표제어 중 1, 2차년도에 번역된 34,8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15,500여개의 표제어와 이에 딸린 뜻풀이, 관용구, 속담 등을 5개 언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대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정호정 외 2015a: 3)

본 사업의 핵심목표는 1) 다양한 사전이 범람하는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돕는 사전을 구축하고, 2) 사용자편의를 극대화하는 쌍방향성을 충분히 제공하며, 3)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문화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곧 이문화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개정보를 제공하며, 4) 이를 통해 우리말 어휘 습득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사용자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다.(정호정 외 2015a: 3)

본 사업에는 연구책임자 1명, 총괄간사 1명, 행정간사 1명, 연구보조 1명, 한국어교육전문가 1명, 사전전문가 1명을 비롯하여 번역연구원 22명, 내용감수연구원 7명, 언어감수연구원 15명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내용감수연구원은 국내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대역수준을 재확인하였고, 언어감수연구원은 각 언어별로 전문성을 갖춘 원어민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 감수를 실시했다.

표 2. 다국어사전 편찬관련 3단계 감수절차(정호정 외 2015a: 11-13)

감수단계	감수내용
감수 1단계: 내용감수	한국어 학습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적절한 언어역을 겨냥한 어휘 및 표현들로 대역 구축
감수 2단계: 언어감수	원어민 감수자가 문법, 어법, 자연스런 표현 등 면밀히 검토 수정하여 최적의 언어적 적합성 확보
감수 3단계: 최종감수	오탈자 및 기계적 오류에 대한 최종감수

Ⅳ.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의 문화소 편찬지침 개요

2015년 다국어 편찬사업에서는 문화소 편찬지침을 수립하여 번역에 임하였다. 우선 문화소를 “특정 문화권에 한해서 존재하는 문화 관련 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우리 문화전통을 반영하여 우리 문화에 특정된 것으로 밝혀진 사회현상과 문화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표제어의 경우 우리말 어휘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정보성을 살리면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정호정 외 2015b: 27)

인명, 지명, 국가명, 궁궐, 사찰, 강, 산, 제도, 도량형 및 전통 문화와 관련된 표현인 문화소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문화소의 분류기준(정호정 외 2015b: 28-29)

문화소의 종류	문화소의 내용 및 사례
1. 한식	한국에서 유래된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 및 음료, 장류(양념류는 포함하지 않음), 음식의 일부분도 한식에 포함되나 식재료는 포함되지 않음 예) 밥(볶음밥 제외), 국, 김치, 된장, 두부찌개, 식혜 등
2. 인명	인명(실존인 및 역사적 인물, 콩쥐 등 문학작품 속 인물은 7.3) 예) 세종대왕, 박혁거세 등
3. 지명/지역명	예) 경주/함경북도/한반도 등
4. 한국역사에 등장하는 국가명	예) 신라/고구려 등

5. 궁궐, 사찰 및 그 안에 위치한 건축물	예) 경복궁/집현전/남대문/불국사/대웅전
6. 강/산	예) 한강/설악산 등
7. 전통문화관련	7.1 전통악기 및 음악/공연장르 예) 꽹과리/판소리 7.2 전통놀이 및 전통놀이에 사용된 놀이기기/기구 예) 씨름/샅바, 널뛰기/널 7.3 전통문학/서적, 전통문학 등장인물 예) 심청가, 통쥐, 용비어천가 7.4 전통가옥 관련용어 예) 아궁이, 기와 7.5 전통복식 및 장신구 예) 저고리, 속저고리, 한복 7.6 전통적 생활방식 및 사상과 관련된 용품 예) 가마솥, 절구, 솟대 7.7 전통문화재 예) 팔만대장경, 거북선 등 7.8 전통무용 및 무예 예) 태껸, 부채춤 등 7.9 전통공예, 서예 및 미술관련 예) 수묵화 등
8. 명절 및 명절과 관련된 풍습	예) 설날/세뱃돈, 추석/추석빔, 대보름/부럼
9. 관직 및 각계각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	예) 양반, 암행어사, 어사, 영의정, 사또, 마님
10.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 및 세는 단위	의존명사 포함 - 부피/분량/양/길이/거리가 들어간 단위/외래어 제외 예) 평수, 되 등 (인치, 미터 등은 X)
11. 기타	

V.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에서의 문화소 표기 기준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에서의 문화소 표기에서 사용한 원칙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착어에 대응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응어를 제시하고 뜻풀이를 번역하였으며, 도착어에 대응어가 없는 경우에는 대응어 칸에 음차역을 제시하였다.

예) 대응어가 있는 경우: 대응어 뜻풀이
대응어가 없는 경우: 음차역 뜻풀이

등가표현이 있는 경우 뜻풀이 칸 앞쪽에 등가표현을 제시하고 이어서 뜻풀이 번역을 제시했다. 등가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뜻풀이칸에 바로 뜻풀이를 번역하였다.

예) 대응어(음차역) 등가표현1, 등가표현2, 등가표현 3: 뜻풀이
대응어(음차역) 뜻풀이번역

뜻풀이칸에 문화소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차역+쉼표+의미역+쉼표(뜻풀이의 끝인 경우는 마침표)'로 표기하되, 지명은 '음차역+쉼표+or+의미역+쉼표(문장의 끝인 경우는 마침표)'로 표기한다.

예) 옷고름: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양쪽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단 끈
Otgoreum: Strips attached to a jeogori or durumagi, traditional Korean upper garments, to fasten both ends of its collar together.

예) 해인사: 경상남도 가야산에 있는 절, 신라시대에 세워졌으며, 팔만대장경 경판을 소장하고 있다.
Haeinsa Temple: a temple located in Gayasan, or Gaya Mountain in Gyeongsangnam-do, or South Gyeongsan Province, South Korea; founded in the Silla Kingdom, it houses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지명, 문화재명 등의 표제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통일안'을 적용하여 '음차역(로마자 표기)+의미역(속성번역)'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자연지명(문화재명)은 전체 로마자표기+속성번역을 원칙으로 하고, 인공지명은 전부(前部) 로마자표기+속성번역을 원칙으로 했다.

예) 자연지명: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예) 인공지명: 광장시장 Gwangjang Market

다국어사전 편찬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도로나 관광 안내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용 목적이나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변형을 인정했다. 특히 책자, 누리집 등의 경우 전체 로마자 표기후 로마자 표기에 대한 의미 번역병기가 가능토록 했다.

예) 불국사 Bulguksa Temple of Buddha Land

명칭종류별 로마자 표기 및 속성 번역 범위 및 순서를 통일했다.

예) 자연지명: Hangang River(○), Hangang Riv.(○),
Han River(×), River Han(×)
예) 문화재명: Gyeongbokgung Palace(○), Gyeongbokgung(○),
Gyeongbok Palace(×)

지명의 속성 번역어를 통일했다.

예) 치안센터: Community Security Center/Community Policing Center/
Police Patrol & Services Center/Police
→ Police Patrol & Services Center

간략형 표기(도로표지 등)를 통일하고 인공 지명의 기존 외국어 공식명칭을 인정했다.

예) 서울고교: Seoul H Sch/Seoul High Sch → Seoul High Sch
잠실종합운동장: Jamsil Sports Complex(기존명칭)
→ Jamsil Sports Complex

Ⅵ. 결론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에서의 문화소 번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소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전구축 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여러 번역가들의 문화소 번역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번역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번역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번역전략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이 향후 사전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감수자의 적극적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화소이지만,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감수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본 사업에서는 3단계에 걸친 감수과정을 거쳤는데 한국인 번역사와 외국인 감수자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사전편찬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어휘와 관용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문법이나 맥락의 층위까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향후 사전편찬작업에서는 문법이나 맥락의 층위들이 특히 어휘에 대한 뜻풀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오숙. (2014).「한국 문학 텍스트 영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통번역학연구』 18(3): 263-289.

권인경. (2013).「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 -제주도 관광안내텍스트를 중심으로-」,『동화와 번역』25: 37-59.

김도훈. (2006a).「문화소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전략」,『국제회의 통역과 번역』8(2): 3-29.

김도훈. (2006b).「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관광지 안내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번역학연구』7(2): 31-51.

김훈밀. (2015).「국내 공공번역 실태와 표준화 현주소」,『통역과 번역』17(2): 1-26.

노진서. (2013). 「한국고전소설의 한영번역연구 - 문화소 번역양태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번역학연구』7(2): 31-51.

박현주. (2014).「공공번역 결과물 오류 유형 분석 - 공공기관 영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통역과 번역』16(1): 1-24.

이근희. (2003).「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번역전략」,『번역학연구』4(2): 5-27.

이승재. (2012). 「문화층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166.

임현경. (2015).「국내 공공번역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조사 및 제언」,『통역과 번역』17(2): 27-50.

전기정. (2008).「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전략 - 『阿Q正傳』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51: 275-299.

정호정. (2015).「공공번역 단일전문전담기구의 필요성 - 중단기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과 당면과제」,『통역과 번역』17(2): 51-80.

정호정 외. (2015a). 2015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다국어 사전 구축사업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정호정 외. (2015b). 2015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다국어 사전 구축사업 연구보고서 - 부록, 국립국어원.

홍정민. (2015).「해외선진사례고찰을 통한 국내 공공번역 시스템 구축방안 제언」,『통역과 번역』17(2): 81-112.

세 션 3(일반세션)

16:15-17:45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 302

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하임의『스위니 토드』를 중심으로

홍정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Ⅰ. 연구 배경

1. 한국 뮤지컬 산업의 급격한 성장

2. 한국 뮤지컬 산업 성장에서 번역의 역할

Ⅱ. 이론적 배경

1. 뮤지컬 번역의 특징: 과정과 결과물

1) 과정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다단계 작업 (곽(Kirk), 2008; 김영신, 2014; 서울경제, 2015.1.22; 더뮤지컬 제73호, 2009.11)

→ TT의 지속적 수정 가능성

2) 결과물

가화(歌化)용이성(singability) (김영신, 2014; 이성은, 2013; 프래존(Frazon), 2008; 로우(Low), 2005)

→ ST에 대한 존중 < 음악과의 조화

Ⅱ. 이론적 배경

2. 뮤지컬에서 재공연 관행

<그림1> 공연과 뮤지컬의 2014년 재공연/초연 비중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연감」)

→ 공연 시점마다 TT의 변화 가능성

3. 재번역으로서 뮤지컬 재공연 가사 번역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에 따라 양상도 다양 (감비에(Gambier), 1994; 알토넨(Aaltonen), 2003; 팔로포스키와 코스키넨(Paloposki & Koskinen), 2004; 강지혜, 2007; 임순정, 2010 등)

→ 텍스트 외적 요인 고찰 필요성

Ⅲ. 분석 대상

1. 분석 대상 작품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뮤지컬『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 (*Sweeny Todd: The Demon Barber of Fleet Street*)』

* 뉴욕 초연: 1979년 3월, 한국 초연: 2007년 9월15일~2007년 10월18일, 한국 재공연: 2016년 6월21일~10월3일
* 젊은 이발사 스위니 토드의 연쇄 살인 복수극
* 드라마, 무대, 음악의 유기적 결합
* 총 2막, 38개 넘버(1막: 24개, 2막: 14개)로 구성. 반음계적 선율, 불협화음, 변박자 자주 사용

2. 분석 대상 넘버

A Little Priest

* 1막 마지막 넘버. 총 361마디로 구성. 경쾌하고 가벼운 ¾박자의 왈츠.
* 목사, 변호사, 군인, 정치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재료로 만든 인육 파이의 맛을 각 직업의 특징과 연결. 직업의 특징과 식재료의 맛을 동시에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 각운 등의 언어유희가 자주 사용

Ⅲ. 분석 대상

3. 평단/언론과 대중의 반응

2007년 초연		2016년 재공연
작품 평단/언론 호평, 흥행 저조	VS.	작품 평단/언론 호평, 흥행 성공
번역 평단/언론 혹평, 무관심		번역 평단/언론 혹평과 호평 혼재, 화제

Ⅳ. 연구 문제

1. 스위니 토드 한국 초연과 재공연의 가사 번역은 음운적, 의미적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2. 스위니 토드 한국 초연과 재공연의 제작 방향 및 참여 주체, 각 시점의 한국 뮤지컬 산업 환경 및 한국 사회적 배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초연과 재공연의 가사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Ⅴ. 분석 틀

1. 가사 번역의 원칙

프래존(2008)	운율적(prosodic) 조화: 선율과의 조화. ex. 음절 수, 리듬, 억양, 강세, 소리내기 쉬운 모음과 자음 시적(poetic) 조화: 음악의 구조와의 조화. ex. 각운, 구문, 행, 연의 구분, 병렬과 대조, 핵심 단어의 위치 의미적(semantic) 조화: 표현. ex. 내용, 분위기, 인물, 묘사, 은유
로우(2005)	펜타슬론 원칙(pentathlon principle): 가화용이성, 리듬, 각운, 자연스러움, 의미에 대한 충실성
켈리(Kelly, 1992)	의미를 찾고 존중, 리듬, 스타일, 각운, 소리, 목표 청자, 원곡에 대한 존중

2. 분석 기준

음운적 측면: 음절의 수, 박자의 강약 패턴, 음의 높낮이, 발음, 각운

의미적 측면: 내용, 상황, 인물, 은유

VI. 텍스트 분석 결과

1. 음운적 측면

1) 음절/단어의 수

<표1> 원곡, 초연, 재공연 가사의 음절 및 단어 수

	ST	TT1	TT2
음절 수	1,053개	1,277개(+21%)	1,196개(+14%)
단어 수	801개	541개(-33%)	505개(-37%)
길이	7분24초	6분57초	7분22초

VI. 텍스트 분석 결과

1. 음운적 측면

2) 박자의 강약 패턴/음의 높낮이: 내용어 배치

3) 발음: 경음/격음 사용

4) 각운: 보존/보상

Ⅵ. 텍스트 분석 결과

2. 의미적 측면

1) 논리 전개

2) 상징

3) 표현 수위

Ⅶ. 가사 번역 변화의 원인

1. 제작 방향/참여 주체

1) 연출자

2) 출연진

3) 번역자

Ⅶ. 가사 번역 변화의 원인

2. 한국 뮤지컬 산업의 변화

1) 관객의 수요 다양화 및 수준 향상
2) 추리·스릴러 계열 뮤지컬의 약진

3. 한국의 사회적 배경

1)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심화
2) 이상(異常) 동기 범죄 확산

Ⅶ. 결론

참고문헌

강지혜. (2007). 「출판 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7-36.

김영신. (2014). 「노래 번역, 뮤지컬 번역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2(1), 209-226.

이성은. (2013).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노랫말 번역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임순정. (2010). 『문학 작품의 재번역 현상 연구 : 스탕달의 『적과 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2015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altonen, S. (2003). Retranslation in the Finnish theatre. *Cadernos de Tradução, 1*(11), 141-159.

Franzon, J. (2008). Choices in song translation. *The Translator, 14*(2), 373-399,

Gambier, Y. (1994). La retraduction, retour et detour. *Meta, 39*(3), 413-417.

Kelly, A. (1992). Translating French song as a language learning activity. *Equivalances 22*(1, 2) & 23(1) [*Special issue Traduire et interpréter Georges Brassens*], 91-112.

Kirk S. H.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Low, P. (2005). The pentathlon approach to translating songs. In D. L. Gorlée (Ed.), *Song and Significance: Virtues and Vices of Vocal Translation* (pp. 185-212). Amsterdam/New York: Rodopi.

Paloposki, O. & Koskinen, K. (2004). Thousand and one translations. Retranslation revisited. In G. Hansen, K. Malmkjaer, & D. Gile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pp. 27-38).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인터넷자료>

송주희. (2015.1.22). [송주희 기자의 About Stage] 역할 커지는 뮤지컬 번역... 말·리듬·감성을 요리하다. 서울경제. Retrieved July 15, 2016,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2630824

박천휘. (2009.11.2). [뮤지컬번역] 번역의 실제 1 / 씨 왓 아이 워너 씨. 더뮤지컬 제73호.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enc_num=qyyFZZFF5yeziZ9rexahpQ%3D%3D

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 번역에 관한 비평적 담화분석

SPOTV News를 중심으로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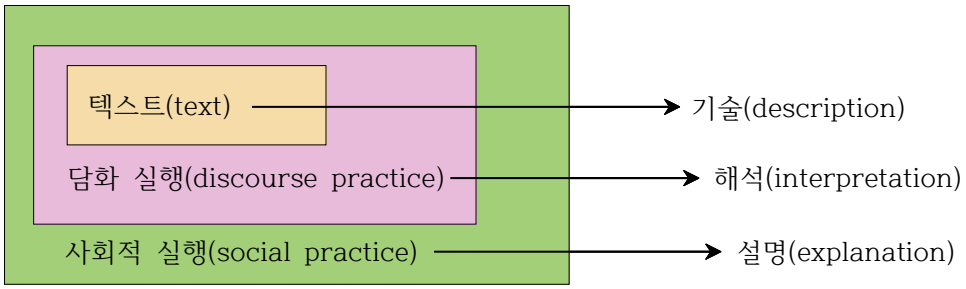
(1) 해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은 국내 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2) 그러한 번역이 생산·소비되는 배경(담화실행 및 사회적 실행)은 어떻게 해석·설명될 수 있는가?

위의 탐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보도의 선두주자인 '스포티비뉴스'(SpoTV News)의 동영상 신문기사를 선정하여, 미국 메이저리그의 강정호, 추신수 선수가 국내에서 어떻게 번역·보도되고 있는지를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한 방법인 Fairclough(1992, 1995)의 3단계 모델에 따라 탐구할 것이다. Fairclough의 3단계 모델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텍스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고, 나아가 그러한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해석·설명함으로써 특정 담화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총체적인 배경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II. 비평적 담화분석과 Fairclough의 3단계 분석모델

비평적 담화분석의 하위 접근법 가운데 하나인 Fairclough의 변증법적·관계적 접근법(Dialectical-Relational Approach)은 Reisigl(2013), Wodak과 Meyer(2009) 등에서 '핵심모델'로 언급되고 있으며, "비평[적] 담화분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이창수 2015: 28)으로 간주된다. Fairclough의 접근법은 "3단계 모델"(three-dimensional model)로 통용되는데, 그 세 가지 층위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 "텍스트", (2) "담화 실행", (3) "사회적 실행"으로 표현되며, 이에 따라 담화분석도 (1) "기술"(description: 텍스트 분석), (2) "해석"(interpretation: 담화생성 및 해석 분석), (3) "설명"(explanation: 담화실행과 사회적 실행 간의 관계 설명)의 3단계로 진행된다(Fairclough 1995a: 97).

그림 1. Fairclough(1992: 73)의 3단계 모델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Fairclough의 3단계 모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impson & Mayr 2010: 53-5; 이원표 2015: 43-9). 첫째, 담화분석의 본질적 부분(Fairclough 2003: 3)인 '텍스트' 단계에서는 텍스트에서 사용된 언어적 자질이 어떠한 의도로 '선택'되었는지를 기술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언어자원의 선택을 다루는 이론, 예컨대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이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텍스트 분석은, Fairclough(2003)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접근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학문영역(예컨대 번역학)의 연구결과나 초학문적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담화실행'의 단계에서는 담화실행의 한 사례(instance)인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유통·소비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담화의 제도적 측면(예컨대 신문사의 편집절차: institutional process)을 분석하거나 담화과정(독자·청자에 의한 텍스트의 해독: discourse processes)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다(Fairclough 1995b: 58). 만일 연구자가 언론사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기사의 번역-편집과정 등을 밝히면 된다(Pan 2014).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Fairclough(1992), Simpson과 Mayr(2010) 등이 그러했듯이, 담화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간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담화과정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적 실행'은 담화가 어떻게 사회의 구조를 유지·변경시키는지, 사회는 어떻게 담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단계로, 바로 이 단계에서 기존의 기술과 해석은 '비평적'(critical) 단계로 발전한다. 예컨대 Simpson과 Mayr(2010: 116)는 EU 확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분석한 뒤 해당 텍스트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담화가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사회적 실행을 어떻게 지속시키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Ⅲ. 자료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5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강정호, 추신수 선수의 멀

티미디어 신문기사 40편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스포티비뉴스의 홈페이지(http://www.spotvnews.co.kr)에서 “현지해설”이라는 검색어로 관련기사를 검색했고, 그 결과 41편의 멀티미디어 기사를 확인하였다. 스포티비뉴스의 멀티미디어 기사는 ‘현지해설’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도 “현지해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인 메이저리거와 관련된 기사만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기사의 구조와 내용을 확인하였고,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박주호(축구선수)와 관련된 기사 한 편을 제외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상, 기사 40편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발행 시기는 강정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타석을 소개한 4월 9일 기사부터 추신수 선수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다룬 10월 13일 기사까지다. 자료수집은 2015년 말에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의 구성 및 특징

스포티비뉴스의 멀티미디어 신문기사는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헤드라인, 동영상, 기사 본문,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멀티미디어 신문기사의 구조(스포티비뉴스의 사례)

Ⅳ. 분석 방법

본 연구는 Fairclough의 3단계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1단계(텍스트): 분석 3단계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1단계에서는 신문기사의 동영상(화면내용+자막), 본문, 헤드라인의 내용을 기술한다. 이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텍스트의 생산 순서가 동영상 → 기사본문 → 헤드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텍스트에 어떠한 (단계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려한다.
  -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해설자의 코멘트, 즉 영어원문을 작성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어민의 감수를 받는다.
  - 동영상, 기사본문, 헤드라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네 가지 번역전략(번안, 삭제, 대체, 추가)을 기준으로 분류·기술한다.

(2) 2단계(담화실행): 앞서 기술한 내용을 텍스트 생산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1단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를 찾아 그 내용을 기술한다.

(3) 3단계(사회적 실행): 텍스트 기술에서 발견된 변이와 그 이유 등을 사회적 실행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Ⅴ. 분석 내용(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1. 텍스트

'추가' 전략의 사용: 어휘항목(lexical item) 등의 추가를 통해 의미를 변경 또는 확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2015년 8월 10일 기사)

- 기사 제목: '시즌 9호포' 강정호, 현지해설 "실력으로 복수했다"
- 동영상 제목: '오빠'가 힘낼게
- 동영상 자막

해설자 A: Jung Ho Kang's hit by pitches in consecutive at-bats, hit by a pitch in this inning. (자막: 강정호 선수는 2번째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었고 이번 이닝에도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습니다.)
해설자 B: A little payback. (자막: 본인의 실력으로 복수를 했네요.)

'대체' 전략의 사용: 대체는 텍스트의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그 요소의 의미 대신에 다른 요소를 추가하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Somers 1992; Somers and Gibson 1994; Baker 2006). 선택적 전유

란 “내러티브의 특정 요소를 은폐, 강조, 또는 상술하기 위한 ‘생략’과 ‘추가’의 패턴[전략]”(Baker 2006: 114)으로 요약된다.

[예시 2] (2015년 8월 5일 기사)

- 기사 제목: ‘타점 무산’ 추신수, 현지해설 “3루 코치 판단 아쉬워”
- 동영상 제목: 3루 코치의 아쉬운 판단
- 동영상 자막

해설자: Tony unfortunately had to make his call before he knew that Correa dropped that ball. (자막: 3루 코치[Tony]는 [상대팀] 유격수[Correa]가 공을 놓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동영상 자막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본문은 다음과 같다.

[추신수의 안타는] 1루 주자 미치 모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타구였다. 그러나 3루 코치가 모어랜드를 막으면서 [추신수의] 타점 기회가 무산됐다. 3루를 향하던 추신수도 2루에 멈춰 섰다. [...] 현지해설진은 3루 코치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격수 카를로스 코레아가 중계 플레이 도중 공을 떨어뜨려 모어랜드가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설진은 “3루 코치가 3루를 돌던 모어랜드를 멈추게 했다”며 흥분한 뒤 “코레아가 커트하는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3루 코치가 이 장면을 못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조는 필자의 것)

2. 담화실행

[예시 1]에 대한 해석. 원문에는 없던 ‘본인[강정호]의 실력으로’라는 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미국 내에서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정호 선수에 대한 회의적 시선 때문일 것이다. 분석된 기사의 발행시기인 8월 초에는 강정호에 대한 미국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시즌 초인 4~7월에는 강정호(KBO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타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국내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 언론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정호의 실력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생산했다. 아래 <표 1>은 강정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실력’의 관점에서 제시한 신문기사의 사례이다.

표 1. 강정호의 ‘실력’에 대한 헤드라인 보도의 변화

신문명	발행일	헤드라인
연합뉴스	2015.1.17	미국 시선은 '반신반의'…강정호 실력으로 신뢰 줄까
뉴스엔	2015.4.19	남다른 각오 강정호, '실력을 보여주자'
중앙일보	2015.5.12	강정호 2루타 또 만들어...MLB에서도 통하는 강정호의 실력!
매일경제	2015.6.16	4번 타자 강정호, 2안타 폭발…MLB서 4번 '실력 입증'
SBS	2015.7.24	'5G 연속 멀티히트' 강정호, 어마무시한 실력 연이어 입증
조선일보	2015.9. 8	강정호가 바꾼건 실력이 아닌 시선일 뿐이다

스포티비뉴스 역시 "시즌 5호포 강정호, 현지해설 '점점 실력 발휘 중'"(7월 18일) 등의 기사를 내보내며, 강정호가 뛰어난 실력의 보유자임을 강조해왔다. 스포티비뉴스의 8월 24일 중계에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야지」라는 제목의 자료화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화면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강정호의 실력과 관련하여, "삼진이 너무 많은 파워 원툴타자, 파워도 의문(포스트 가젯)" → "멀티홈런, 홈관중을 기립하게 만들었다(포스트 가젯)" 등의 인식 변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결국, '본인의 실력으로 복수했다'라는 번역은 번역자의 순간적 선택이나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강정호의 실력에 대한, 그간의 보도 내용과 연관이 있다.

3. 사회적 실행

끝으로, 앞서 논의한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내용들을 Fairclough의 사회문화적 실행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즉, 해외로 진출한 유명 스포츠 선수의 멀티미디어 신문기사는 '어떠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회를 위해' 생산되는가? 그러한 신문기사는 기존의 '사회관계'(social relation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의 해답은 '미디어 자본주의'와 '스포츠 민족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원표 (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이창수 (2015)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담화구조: 코퍼스 기반 미디어 비평담화분석 관점에서』, 서울: 집문당.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Routledge.

Somers, Margaret R. (1992) 'Narrativity, Narrative Identity, and Social Action: Rethinking English Working-class Formation', *Social Science History* 16(4): 591-630.

Somers, Margaret R., and Gloria D. Gibson (1994) 'Reclaiming the Epistemological "Other": Narrative and the Social Constitution of Identity', in Craig Calhoun

(ed.)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37-99.

Fairclough, Norma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Fairclough, Norman (1995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Longman.

Fairclough, Norman (1995b) *Media Discourse*, London: Arnold.

Reisigl, Martin (201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Robert Bayley, Richard Cameron and Ceil Luc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7-90.

Simpson, Paul and Andrea Mayr (2010) *Language and Power: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Wodak, Ruth and Michael Meyer (2009)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econd edition, London: Sage.

영미권 소설에서 한국 영화로의 각색 사례 연구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내러티브 번역을 중심으로

선 영 화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 문제

[1] 영미권 소설이 한국 영화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
[2] 내러티브 번역이 일어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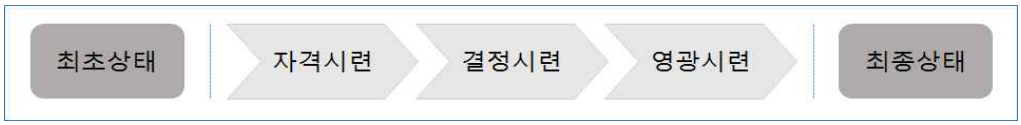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번역과 각색에 대한 논의

- 번역과 각색은 ST가 지닌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다시쓰기(rewriting)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각색은 포괄적이고 새로운 맥락에서의 텍스트 "재해석"(reinterpretation)이며 ST의 시간적, 문화적 배경을 "재배치"(relocation)하는 행위 (샌더스(Sanders), 2006)
  → 이러한 특성은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크렙스(Krebs), 2014)
-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 →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라는 내재적 특성은 동일하지만 원문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타 매체로의 전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색 과정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작업(베누티(Venuti), 2007)
- 상기와 같이 번역과 각색 간 내재적 특성에 있어서의 상호 연관성과, 해당 분야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이 서로 유사하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두 분야를 동일한 범주에서 고찰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음
- ST의 의미와 의도가 TT에 반영되거나(니다(Nida), 2012) ST의 "본질적인 핵심"(essential core)이 TT에서 재현 혹은 재창조된다면(바스넷(Bassnett), 2002) 이러한 각색은 매체를 달리하는 "내러티브의 번역"으로 간주될 수 있음(조(Cho), 2005)

2. 그레마스(Greimas)의 내러티브 도식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나 그 골격은 동일함
  → 이 골격이 바로 '내러티브 도식' (박인철, 2012)
- 내러티브 도식은 "일체의 설화적 담화들을 조직하는 원리"로, 최초상태의 등장인물이 세 가지 종류의 시련을 겪으며 그 반대의 상태인 최종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박인철, 2012)



1) **최초상태**: 어떠한 종류의 결핍이나 훼손 상태가 제시되며, 이러한 결핍의 해소나 훼손의 복구가 등장인물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됨
2) **자격시련**: 뒤에 이어질 결정시련 혹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도구(역량)를 획득하는 과정. 이러한 역량은 '의지, 지식, 능력'으로 구분됨
   - 의지: 결핍의 해소가 동기로 작용하여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
   - 지식: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습득,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위
   - 능력: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지배력의 획득
3) **결정시련**: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 시련
4) **영광시련**: 결정시련의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또는 행위 주체의 자기 평가
5) **최종상태**: 세 가지 시련 과정을 거쳐 변형된 반대의 상황(결핍의 해소, 훼손의 복구)

- 본 연구 대상 텍스트는 '최초상태'와 '최종상태'의 차이 혹은 대립을 통해 의미가 성립되는 설화성(narrativité)을 갖춘 텍스트로, 그레마스의 모델이 ST와 TT의 내러티브 구조 및 의미의 차이를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분석 틀 적용

Ⅲ. 연구자료 및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텍스트

- 미국 작가 바바라 오코너(Barbara O'Connor)의 장편소설(2007년) → 한국에서 번역서 출간(2008) → 한국 영화로 각색 및 개봉(2014년 12월 31일)
- 2007년~2008년 14개 문학상 수상
- 전체 줄거리(ST-TT 공통)

사업 실패로 아빠가 집을 나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소녀는 엄마, 동생과 함께 차에서 생활하게 된다. 우연히 사례금 500달러에 개를 찾는 전단지를 발견한 소녀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개를 훔친다 → 개 주인이 사례금을 건 전단지를 붙인다 → 개를 찾은 것처럼 하고 주인에게 데려다 준다 → 돈을 받는다 → 집을 산다 → 행복하게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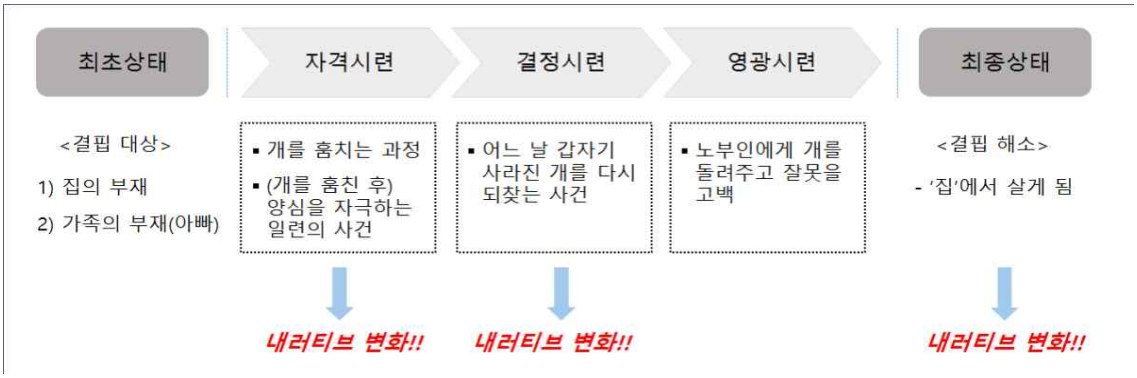
소녀는 어느 노부인의 개를 훔치는데 성공하지만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내적 갈등을 겪던 소녀는 노부인에게 개를 돌려주고 잘못을 고백한다. 이후 엄마, 동생과 함께 다시 집에서 살게 된다.

2. 분석 방법

- ST와 TT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주요 에피소드를 확인하고 이를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도식 각 단계에 적용 → ST와 TT의 도식 비교를 통해 내러티브 번역 양상 확인
- 감독 인터뷰, 제작 기획서 등 텍스트 생산의 관점을 보여주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상기에서 도출된 내러티브 번역을 촉발시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도출

Ⅳ. 분석 결과

1. 내러티브 구조 분석



- '자격시련, 결정시련, 최종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변화되는 양상 확인

1) 자격시련

- 결정시련 혹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지, 지식, 능력) 획득 단계

① 첫 번째 자격시련: 소녀가 개를 훔치는 일련의 과정

역량	ST		TT	
의지	O	개를 훔쳐 집을 사겠다는 의지	O	개를 훔쳐 집을 사겠다는 의지
지식	O	훔칠 개 선정, 동선 파악 등	O	훔칠 개 선정, 동선 파악 등
능력	X	-	O	친구, 동생의 원조 (강력한 원조자)

▹ 역량 중 '의지', '지식'은 ST/TT 모두 동일하게 획득
▹ 그러나 TT에서는 ST의 등장인물을 **원조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재구성** → **'능력' 추가 획득**
- ST에서는 소녀의 '결핍'을 알고 외면했던 '친구'가 TT에서는 강력한 원조자로 재구성
- '동생'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와 기억력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로 재구성

② 두 번째 자격시련: (개를 훔친 이후) 소녀의 양심을 자극하는 일련의 에피소드

역량	ST		TT	
능력	X	해당 내용 없음	O	노부인, 노숙자와의 공감대 형성 ('가족의 부재') → 원조자

▹ 노숙자의 의심: ST와 TT에 공통적으로 나타남
▹ **ST에 없는 내용이 TT에 추가됨**: 노부인의 가족 부재(아들) 사연, 노숙자의 가족 부재(딸) 사연
▹ '아빠의 부재'라는 결핍을 지닌 소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조자로 재구성됨 **('능력' 획득)**
→ **'원조자'로서 향후 결정시련과 최종상태에서 결정적 역할 수행**

■ 텍스트 비교 사례 1 (추가 - 노부인의 가족 부재 사연)

<ST> 해당 내용 없음
<TT>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서른에 혼자 그림 그리다 사고로 죽었어. [...]
"혹시...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했어. 난 절대 안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월리인가요?"

■ 텍스트 비교 사례 2 (추가 - 노숙자의 가족 부재 사연)

<ST> 해당 내용 없음
<TT>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아왔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싶지. 너는 상상도 못할걸."
"아니 보고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거지.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오고 그

런다고."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그럼.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2) 결정시련

-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 시련
- ST: 개가 사라지자 소녀는 노숙자를 의심하지만 이것이 오해였음을 확인하는 에피소드
  → 노숙자의 신조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 발견('**양심의 회복**')
  ('무키 아저씨와 아저씨의 신조가 떠올랐다. **살면서 뒤에 남겨놓은 자취가 앞에 놓인 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
- TT: ST와 마찬가지로 개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TT에서는 노부인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개를 훔쳐간 노부인 조카와의 추격전으로 재구성됨. 자격시련 단계에서 획득한 원조자인 '노숙자, 동생, 친구'가 이 과정에서 해당 시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결정적 도움 제공

3) 최종상태

- 개를 돌려주는 영광시련 이후 결국 집을 얻게 되는 결말이 ST, TT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됨
- 그러나 집을 얻게 되는 계기가 ST와 TT에서 상이하게 나타남

<ST> 우리의 새 집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토미와 나는 서로를 향해 씨익 미소 지었다. 작지만 새하얀 집이었다. [...] 루이즈라는 아줌마 한 명이 드루라는 이름의 아기를 데리고 이미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루이즈 아줌마는 팻시 아줌마 친구라고 했다 루이즈 아줌마에겐 집을 같이 쓰면서 드루를 돌봐주고 집세를 보태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TT> "한샘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살던 집인데 전세 500에 세를 놨다는거야. 아니 전세 500에 이런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딱 500이야?"

- ST: 소녀는 자격시련 단계에서 이후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획득하지 못했고 결정시련과 영광시련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면서 결국 개를 돌려줌. 그 결과 소녀의 힘으로 집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짐). 그러나 '개'는 '집'을 의미하는 동시에 '양심'을 뜻하는 이중적 의미임. 따라서 이러한 소녀의 표면적 실패는 역설적으로 '양심의 회복'을 의미함.
  → 옳은 일을 행하기로 결정한 소녀의 내적 성장이 작품의 주제로 강조됨 ⇒ '*성장소설*'

- TT: 소녀는 ST에서와 동일하게 영광시련에서 개를 돌려줌. 그러나 앞선 자격시련에서, '가족의 부재'라는 공감대를 통해 '능력'(원조자:노숙자, 노부인)이라는 역량을 추가로 획득하였고 이들 원조자는 결정시련과 최종상태에서 소녀가 추구하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

는 결정적 역할을 함. 특히 원조자 중 노부인이 소녀가 추구하던 대상인 '집'을 선물하는 결말로 재구성됨으로써, **소녀가 앞선 시련에서 획득한 역량(능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구조로 내러티브가 변화됨.**

→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해라는 관계 중심적인 측면이 작품의 주요 메시지로 부각됨

⇒ 성장소설로서의 ST가 TT에서는 '***가족영화***'로 재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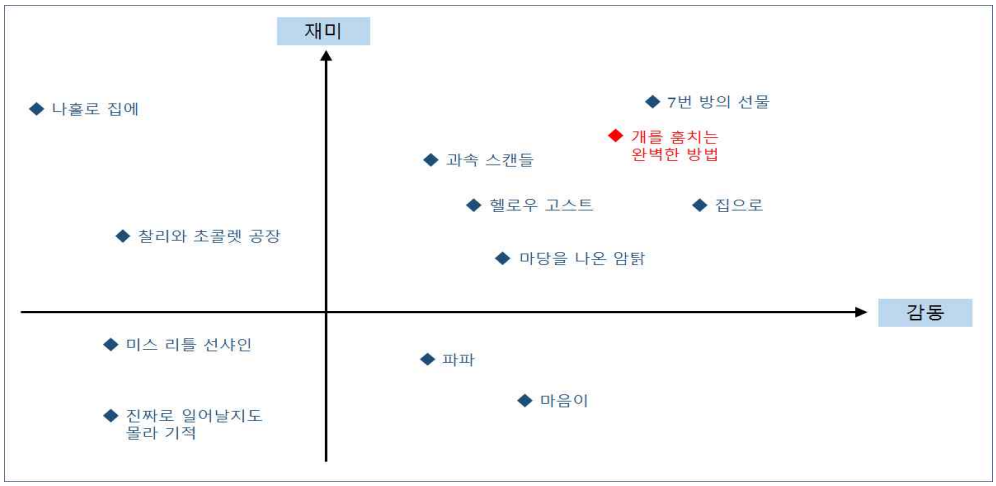
2.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해석

1) 가족영화의 장르적 특성

①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제작 기획서의 **마케팅 컨셉 및 포지셔닝 맵** 확인

- 마케팅 컨셉: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감동 드라마**', '열살 소녀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도둑질'
- 장르: 휴먼 감동 가족 드라마

<포지셔닝 맵>



- **재미와 감동을 축으로 하는 포지셔닝 맵** 상에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위치한 사분면의 영화들은 **어린이가 주요인물로 등장하거나 가족 관계를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서 제작된 가족영화'임**

  → 특히 해당 영화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이슈가 된 작품들**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을 주제로 하는 가족주의의 정서'가 부각된 영화**라는 점에 주목

  * 7번 방의 선물(2012): 역대 박스오피스 6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 과속스캔들(2008): 역대 박스오피스 24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 집으로(2002) : 전국 관객 419만명 (sleeper hit)
  * 마당을 나온 암탉(2011): 전국 관객 220만명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상업 영화의 특성 상, 작품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고**

려해야 함. 따라서 해당 문화권 수용자(한국 관객)의 특성을 반영해 그들의 가치관, 정서에 부합하고 영화적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러티브를 각색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가족 관계'를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하여 그들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을 '재미' 있으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 가족영화의 장르적 특성이,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가족 해체라는 소재를 이면에 다루고 있는 원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각색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② 감독 인터뷰 및 영화 평론 분석

- 흔히 아는 현실, 일상에 판타지 요소를 도입하는데 관심 → **집이라는 현실적 소재에 판타지 요소를 도입**하여 풀어나감으로써 아이들이 주인공인 따뜻한 가족영화를 만들고자 했음
- "차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과 평당이라는 도시에 있는 500만원 짜리 집을 구하는 판타지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조흡, 2015)
- "그토록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화해의 열쇠는 '사랑'"(최재훈, 2015)
- **가족 해체와 가난, 주거 불안정**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가족'과 '우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각색**함으로써 감독이 의도했던 현실과 판타지의 조화를 구현

2) 한국의 가족주의

-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5년마다 조사) 결과,
  - 한국인의 행복 수준(10점 만점에 6.9점):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 상승 → '가족'이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 고민 상담 대상은 주로 가족/친척(44.0%)이며,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도 가정(68.4%)으로 여전히 가족주의가 대세
-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가족주의'로 규정**될 수 있음.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족주의는, 구성원 사이의 애정과 결속력에 대한 욕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을 다른 사회 관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태도와 의식을 의미하기도 함(이명호, 2013). 이와 관련해 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확대된 형태로서의 집단, 더 나아가 국가가 모두 가족주의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는 연구 존재
- 한국에서 '**가족'은 미디어(드라마/영화)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내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석을 통해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김기덕, 이동배와 장제윤, 2012), **드라마, 영화는 허구이지만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재현된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일면**을 보여줌
- 담론적 실천을 통해 재현된 가족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하나의 진실 체제'를 구성하며 이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및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침**(김수아, 강명구, 우위지에와 차이판, 2007)

참고문헌

김기덕, 이동배, 장제윤. (2012).「한류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주의: 현대 중국인의 시각을 중심으로」,『문화콘텐츠연구』, 2, 7-29.

김수아, 강명구, 우위지에, 차이판. (2007).「가족 관계의 변이: 한중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재현」,『방송통신연구』, 12, 143-173.

김숙영. (2014).「2014 소치동계올림픽 안현수 현상에 대한 의미구조분석」,『기호학연구』, 41, 113-141.

박세리. (2015).「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을 적용한 일한 광고 번역 사례 연구: SK-Ⅱ 광고 분석」,『통번역학연구』, 19(3), 149-178.

박인철. (2003).『파리 학파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박인철. (2012).「설화 도식 재론」,『기호학연구』, 31, 141-179.

박지회. (2012).「스토리 소스로서의 동화의 재발견: 페로의「빨간 모자」와 이를 각색한 파생 콘텐츠 비교」,『기호학연구』, 33, 153-198.

오코너, B. (2008).『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신선해 역). 서울: 다산북스. (Original work published: O'Connor, B.(2007). How to steal a dog. New York : Farrar, Straus & Giroux)

이명호. (2013).「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사회사상과 문화』28, 359-393.

조흡. (2013).「<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각색의 문화경제학」,『대한토목학회지』, 63(4), 76-79.

Bassnett, S.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Cho, S. -E. (2005). Intertextuality and translation in film adaptation.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udies,* 12, 87-104.

Krebs, K. (2014). *Translation and adaptation in theatre and film*. London & New York: Routledge.

Nida, E. (2012).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141-155). London & New York: Routledge.

O'Connor, B. (2007). *How to steal a dog*.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Sanders, J. (2006). *Adaptation and appropriation*. London: Routledge.

Venuti, L. (2007). Adaptation, translation, critique. *Journal of Visual Culture, 6*(1), 25-43

세 션 3(다국어세션)

16:15-17:45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 302

한태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점

정 환 승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들어가는 글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태국인에게 알맞은 한국어 교재였다. 초창기에 한국어 교육을 담담했던 한국인 교수진에 의해 집필 되었던 교재들이 나중에 태국인 교수들이 교재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현재 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는 60여권에 달한다. 태국에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면서 직면하게 된 문제 중의 하나가 한국어의 문법 용어를 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한국어와 태국어가 언어적으로 친족관계가 아니고 언어학적 특성도 많이 다르므로 한국어의 문법용어를 태국어로 옮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재 집필자들이 제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되고 그 결과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언어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언어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Ⅱ. 한태 비교 연구와 한국어 교재 개발

1. 한태 비교 연구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어와 태국어 비교 연구는 최은희(1992), 정환승(1993), 박경은(2011), 현양원(2012), 이채문(2012)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어와 태국어 비교 연구는 Prajuab Yinsen(2000) (2005), 쭈타맛 분추(2007), 씨나롯 낫타완(2011), 마난차야 넷푹까나(2011), Koheng, Boonrit(2009), Krawmoh, Wanida(2012) Angkul, Titiwat(2012), 사시완 낙콩 (201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2.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인에 의해 교재가 집필 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여명의 집필자에 의해 20권 이상의 교재 출판되고 태국인에 의한 교재 개발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0여명의 집필자에 의해 30여권이 교재재가 출판되었다.

3.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응성

(1) 소리 체계

한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의 음소가 있는데 비해 태국어의 자음은 모두 21개의 음소를 가지고 있다. 태국어에 없는 한국어 음소는 [ㅈ], [ㄱ], [ㅅ]으로 표기되는 음가들이다.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파열음, 마찰음 등과 같은 용어 중에서 예사소리와 된소리 등은 태국어로의 대역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음운론 차원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 예컨대 자음동화, 구개음화, 격음화, 경음화 그리고 모음조화 등도 대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어휘 체계

태국어는 고립어라서 기본적으로 어형의 변화가 없다. 또한 접사의 경우 지극히 제한된 차용어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접사들을 태국어로 대역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이 없는 태국어에서 대역하기 어려운 한국어 문법용어에는 활용, 활용형,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동사, 불규칙 형용사 등이 있다. 보조용언이나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등은 어느 정도 대응성이 있는 부동사 (กริยารอง) 가 있어 그리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3) 문장론

한국어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관형사, 형용사, 부사, 조사
태국어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수식사, 접속사, 전치사

태국어의 수식사는 คำวิเศษณ์ 인데 한국어의 형용사와 부사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학 교육에서는 วิเศษณ์ 은 부사로 คุณศัพท์은 형용사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수식사를 วิเศษณ์ 과 คุณศัพท์으로 나눌 경우 각각 한국어의 부사와 형용사에 대응되나 한국어의 관형사는 태국어로 대역하거나 설명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형용사가 태국어에서는 상태성 동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조사가 태국어로 대역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Ⅲ. 한국어 문법 용어 대역 오류 분석

1. 소리 체계 관련 문법 용어

예사소리를 1차 번역에서 เสียงไม่ก้อง 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무성음' 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한국어의 예사소리가 무성음이기는 하지만 모든 무성음이 예사소리는 아니다. 감수 및 교정 과정에서 예사소리는 เสียงระเบิดเล็กน้อย –'약하게 파열되는 소리', เสียงกกไม่ก้องไม่พ่นลม–'약한 유기 폐쇄음' 으로 최종 번역되었다.

된소리는 1차 번역에서 เสียงหนก, เสียงแข็ง, เสียงก้อง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무거운 소리', '단단한 소리', '유성음' 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된소리의 일부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로 된소리에 대한 대역어로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태국어에 เสียงสถิล 이라는 적절한 대응어가 있으므로 최종 감수과정에서 เสียงสถิล 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거센소리와 마찰음은 태국어에 적합하게 대응되는 용어가 있어 각각 เสียงธนิตและ เสียงเสียดแทรกและ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구개음화와 모음조화에는 태국어에 적합한 대응어가 없어 한국어 문법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태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하였다.

자음동화의 경우에는 태국어에 대응어가 없어 한국어 설명을 그대로 태국어로 옮겼는데 대역어는 การกลมกลืนของพยญชนะ 로 무난하게 번역했지만 설명문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의미가 까다로워서인지 번역의 오류가 일어났다. 한국어 설명문에서 '바뀌다' 는 소리의 성질이 바뀐다는 의미인데 1차 번역에서 이를 '위치가 바뀌다' 로 잘못 이해하여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모두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พ้งสองเสียงถูกสบเปลี่ยนโดยได้เหมือนซึ่งกนและกนพ้งสองข้าง 로 번역한 것을 พ้งสองเสียงคล้ายกนอยู่แล้วจึงทำให้พ้งสองเสียงเปลี่ยนไป 로 수정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2. 어휘 체계 관련 문법 용어

어휘체계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체언과 명사, 용언과 동사, 관형어와 형용사 등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이다. 어휘체계 관련 문법 용어의 오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 체언과 용언

체언의 경우에 1차 번역에서 이를 นามวลี, คำนาม, คำที่ทำหน้าที่เป็นคำนาม, คำที่ใช้เป็นคำนามและ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명사구', '명사', '명사 기능을 하는 말', '명사로 사용하는 말' 의 의미여서 체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체언을 นาม 으로 번역하고 한국어의 "명사"는 คำนามและ으로 번역하여 체언과 명사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용언의 경우에는 1차 번역에서 ภาคแสดง, คำที่แสดงกริยาอาการและ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술부', '동작성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용언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용언을 กริยา 로 번역하고 동사를 คำกริยา 번역하여 용언과 동사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용언과 동사를 구분해 놓으면 보조용언과 보조동사의 대역에 있어서도 이를 각각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와 คำ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로 번역하면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한편 태국어에서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와 의미가 유사한 กริยารองและ이 있는데 흔히 부동사라고 부른다.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는 보통 전통주의 문법에서 사용하고 กริยารองและ은 구조주의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단 태국의 학교문법이 전통주의 문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를 대역어로 삼기로 하였다.

2.2 관형사와 형용사

관형사의 경우에 태국어의 형용사를 뜻하는 คุณศัพท์과 대응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태국어의 상태성 동사와 대응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관형사를 คำคุณศัพท์ขยายนาม 으로 번역하고 형용사는 คำกริยาบอกสภาพ 으로 번역한 것을 คำคุณศัพท์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형사는 กริยาแสดงสภาพนุเคราะห์로 번역한 것을 คุณศัพท์นุเคราะห์ 로 수정하고 불규칙 형용사도 คำกริยาแสดงสภาพวิสามญ 으로 번역한 것을 คุณศัพท์วิสามญ 으로 수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접사는 태국어문법에 없는 용어이기는 하나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크메르어 등을 차용하면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 접사를 1 차 번역에서 คำเติม 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วิภตติปจจย 가 훨씬 대응성이 높은 말이므로 수정하기로 하고 설명하는 말도 한국어 원문에 더 가깝게 수정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조사의 경우에는 태국어에 없는 성분이어서 마땅한 대응어를 찾기 어렵다. 태국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ตวชี คำบ่งชี คำชี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1차 번역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คำชี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 설명문에서 수사를 ตวเลข으로 번역한 것을 คำบอกจำนวน으로 바로 잡았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격조사 번역에서 모두 คำชี 로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4 어간과 어근

어간과 어근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를 คำกริยาแสดงสภาพ 로 잘못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되어 있으나 대역어는 어간과 어근 모두 รากศัพท์으로 되어 있다. 태국어의 ราก 이 '뿌리'의 의미이므로 어근에는 대응되나 어간에는 대응성이 떨어진다. 한자어 간(幹)은 태국어의 แก่น 에 대응되므로 어간을 แก่นศัพท์으로 대역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5 접두사와 접미사 그리고 접미사와 어미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접미사와 어미를 혼동하기 쉽다. 접미사는 ปจจย 라는 대응어가 있으나 어미는 대응어가 없어 1 차 번역자가 วิภตติปจจย 라고 번역한 것을 일단 수용하였다. 그러나 태국어의 วิภตติ이라는 말은 본래 팔리어 등에서 격이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어미변화를 의미한다. วิภตติปจจย 는 성, 수, 격, 시제, 서법, 태 등을 나타내기 위한 어형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명사의 곡용과 동사의 활용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런데 접사와 어미 모두 태국어 대역어를 วิภตติปจจย 함에 따라서 두 문법용어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접사와 어미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미를 ส่วนต่อท้ายตำ 또는 คำต่อท้านคำ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어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6 합성어와 파생어

한국어의 실질형태소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용어로 번역되었다. 1 차 번역자는 실질 형태소를 หน่วยคำเติม 이러고 번역한 것을 หน่วยคำแท้라고 수정하였다. 한국어의 '실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파생어 설명에서는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 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자립형태소와 대응되는 말이다. 그러나 태국어 문법용어 중에 หน่วยคำแท้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통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 형태소는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 로 번역하고 접사는 วิภตติปจจย 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7 동사의 활용

동사의 활용은 태국어에서 วิภตติปจจย 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다. วิภตติปจจย 를 쉬운 말로 풀어 쓰면 การผน 이 된다. 태국어에서 동사의 활용은 없지만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문법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라서 대역어가 있다. 1 차 번역에서 활용에 대한 대역을 การผน, การผนท้ายศัพท์คำกริยา,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ายศัพท์คำกริยา 로 세밀하게 번역한 것을 การผน 하나로 수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더더기는 버리고 용어의 간결성을 높였다. 이어서 규칙활용은 ผนสามญ 불규칙활용은 ผนวิสามญ 으로 대역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문장론 관련 용어

3.1 격

명사의 사용과 관련된 문법 범주 중에 격은 태국어 학습자들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다. 1 차 번역에서 격을 한국어 초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คุณสมบติเป็นคำนาม 번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태국어에 การก 이라는 문법용어가 있으므로 การก 으로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격조사는 คำชีการก 관형격은 คุณศัพท์การก 보격은 วิกติการก, การกชีคำเสริม 으로 대역하였다. 보격의 경우 วิกติการก 은 태국인들에게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어 การกชีคำเสริม 을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3.2 시제

시제는 태국어에 กาล이라는 대응어가 있어서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각각 อดีตกาล ปจจบนกาล อนาคตกาล 로 번역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제(tense)와 시간(time)을 혼동하여 1차 번역에서 현재와 현재시제 모두 ปจจุบนกาล으로 번역한 것을 현재는 ปจจุบน 현재시제는 ปจจุบนกาล으로 수정하였다. 현재형은 รูปปจจุบน으로 무난하게 번역하였다. 상(aspect)의 경우에도 การณ์ลกษณะ라는 적합한 대응어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데 1차 번역에서 현재완료를 ปจจุบนกาลสมบูรณ์하였는데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การณ์ลกษณะสิ้นสุดลงในปจจุบน으로 수정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3.3 서법

서법은 태국어에 มาลา라고 하는 대응어가 있는데 1차 번역에서 การเปลียนรูปประโยค, ชนิดของประโยค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을 바로 잡았다. “심리적 태도” 는 ท่าทีทางจิตใจ로 직역한 것을 เจตนารมณ์으로 수정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3.4 수동과 사동

수동태는 태국어에 กรรมวาจก이라는 대응어가 있다. 그런데 수동과 수동태 구분에 있어서 1차 번역에서 수동을 การถูกกระทำ, กรรมวาจก으로 번역한 것을 การถูกกระทำ만 수용하고 수동태는 กรรมวาจก으로 그리고 수동형은 รูปกรรมวาจก 으로 번역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동법에 있어서도 사역과 사동법의 구분이 필요한데 1차 번역에서 사역을 การิตวาจก, กริยาของประโยคทีแสดงว่าประธานทำหน้าทีเป็นผู้รบใช้으로 번역한 것을 การิต으로 수정하여 정확성과 간결성을 높였다. 사동법은 1차 번역에서 กฎการิตวาจก 번역하였는데 이는 ‘사동 규칙’이라는 뜻이 되므로 การิตวาจก으로 바로 잡아 정확성을 높였다.

3.5 독립어와 독립언

문장 성분 중에 독립어와 독립언이 있는데 1차 번역에서 이를 각각 คำโดด과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คำโดด은 고립어라는 의미에 가깝고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는 자립형태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คำโดด은 คำอิสระ로 수정하고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는 ส่วนประกอบอิสระ로 수정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3.6 대우법

높임법의 경우에 1차 번역에서 รูปแบบสุภาพ, รูปแบบยกย่อง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높임형’의 뜻이 되므로 วิธีการยกย่อง으로 수정하여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높임법과 관련된 문체에는 –하게, -하오, -합쇼, -해라, -해요, -해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차 번역에서 이를 한국어 설명어를 바탕으로 뜻을 살려 번역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태국인 학습자가 짐작하거나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그냥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하게체를 รูปยกย่องเล็กน้อย 하오체를 รูปยกย่องปานกลาง로 번역하여 각각 ‘약간 높이는 형태’, ‘중간 정도 높이는 형태’ 로 표현한 것을 그냥 “รูปยกย่อง 하게”, “รูปยกย่อง 하오”로 수정하였다.

Ⅳ. 마무리

한국어를 외국어로 교육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모국어로 문법용어를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대상어인 한국어의 언어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태국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คยองอึน ปาร์ก (2012) “ปรากฏการณ์พหุนยคำว่า 가다/gada/ใ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คำว่า ไป: 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การศึกษาตามแนวภาษาศาสตร์ปริชาน ปริญญาดุษฎี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ศา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ธรรมศาสตร์ 2554.

แชร์, อึนฮี (1992) “การศึกษาเปรียบเทียบระบบคำใ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ภาษาไทย”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งขลานครินทร์ 2535

แชมุนลี(2013) 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กริยาแสดงกดารรบรู้ด้วยสายตาของคำว่า 보다[boda:”see”] ใ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คำว่า ดู และ เห็น ในภาษาไทย การศึกษาตามแนว ภาษาศาสตร์ปริชาน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ศา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ธรรมศาสตร์ 2555.

ฌองส์ ฮวน ซึง (1993) “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เปรียบเทียบระบบโครงสร้างภาษาไทยและ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งขลานครินทร์ 2536.

ยางวอน ฮยอน(2013) “การศึกษา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ระบวนการจดประเภทคำนามด้วยคำลกษณนาม ในภาษาไทยก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ตามแนวภาษาศาสตร์ปริชาน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มหาวิทยาลยเชียงใหม่ 2535.

사시완 낙콩(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태국어의 다의어 대조 연구 : 동사 '먹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씨나롯 낫타완(2011).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태국어 전치사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난차야 넷푹까나(2011).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유의어 대조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쭈타맛 분추(2007). “한국어와 태국어의 분류사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gkul, Titiwat(2012). “한국어와 태국어의 공감각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oheng, Boonrit(2009). “한국어와 태국어 과거시제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rawmoh, Wanida(2012). “현대 한국어와 태국어의 인칭 대명사 대조 연구: 언어유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rajuab Yinsen(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 대조 분석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rajuab Yinsen(2005).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우 표현에 관한 대조적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